

2016 시흥문화원 춘계 학술대회

제5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2016. 6. 8



시흥문화원

제5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추곡 정제두와 양명학-

시 간	내 용
13:30~13:40 (10')	♣ 개회식(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말 등)
13:40~14:30 (50')	(사회 :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 추곡(楸谷) 정제두(鄭齊斗) : 전남훈(시흥양명학연구회장) ◦ 주자학과 양명학의 비교 : 유한형(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 양명학 입문 : 김선옥(시인) ◦ 정제두의 한국 양명학 : 정원철(시흥문화원장)
14:30~14:40 (10')	♣ 휴식
14:40~15:50 (50')	♣ 질의응답 및 강평(정인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일시 : 2016. 6. 8.(수) 13:30 ~ 15:30

♣ 장소 : 시흥문화원 다목적홀

♣ 주최 : 시흥문화원

♣ 협조 : 시흥양명학연구회, 시흥향토문화연구소

머 리 글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세미나란 통상 연구회나 전문가들의 집중강의와 회의를 말하며, 심포지엄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나 권위자들이 강연식의 의견을 발표하고 청중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데, 여러 의견을 발표할 경우에 적합하다고 한다. 한편 포럼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토의방식이며, 컨퍼런스는 전문적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세미나란 그러한 모든 방식을 망라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시흥지역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학술 행사라는 의미다.

작년 한 해에 두 번의 세미나를 치루고보니 3년 전에 시작한 ‘시흥지역문화 세미나’가 어느새 5차에 이르렀다. 지역 사회의 문화적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진 것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1차를 치루고 나서는, 학자에게 요청하여 ‘시흥 지역의 전통 민속’을 연구 발표하고 청중의 질문 받는 심포지엄 형식으로 세미나를 치루었다. 또한 시흥문화원이 선정한 시흥의 인물에 관한 논문 형식의 글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다음 해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기 발표한 ‘시흥의 인물’ 자료집을 읽고, 발제와 토론에 나서는 모의 세미나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5차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에서는 포럼 형식으로 발표자를, 학자가 아닌 우리 지역민으로 하고 청중의 질문 답변 후, 전문가의 강평을 듣는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어느 길로 가든 우리는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는 문화원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역의 전통 민속(시흥향토민요, 월미두레풍물놀이, 군자봉성황제 등)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기도 하고, ‘시흥의 인물’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세미나를 하였으며, 1914년부터 75년간 광역 시흥군으로 공동 운명체였던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주제를, 내외 지역과 소통하면서 시흥지역문화를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뒤늦게 발굴한 한국 양명학의 태두(泰斗) 정제두 선생과 양명학에 관한 세미나를 학자들과 진행하였다. 혹시라도 광복 행보로 지역 현안을 나열하기만하는 세미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사상사의 한 뿌리를 장식한 양명학을 심도깊게 연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시흥의 전통인물 중의 한 분이신 정제두 선생을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사상사에서 걸출한 업적을 이룬 분으로 분류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현대 신유학이 정제두 선생의 한국양명학 사상의 뿌리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침 금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시흥 문화원이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추곡 정제두 선생과 양명학에 대하여 정인제 교수에게 공부하였다. 수강생들의 공부가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학문이 아닌, 질문하고 답하면서 성의(誠意)를 다하는 양명학의 수양방법과도 부합하기에 주저 않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인성교육이 새롭고 절실하게 필요한 바, 정제두 선생의 사상과 양명학이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實心實學) 정신이 대중사회의 흐름에서 소외되면 삶의 지표조차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부평초같은 삶에 뿌리를 내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문화활동가와 시흥시민 모두가 나서서 정제두 선생의 사상을 선양하여, 우리 시흥시와 강화군을 잇는 중부권역이 인성교육과 평화로운 공동체 변영의 메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에서는 정제두와 한국양명학 선양사업이 중차대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금년도 연성문화제에서도 ‘제6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에서 ‘한국양명학회’ 교수를 초빙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사상을 시민에게 직접 소개한다. 제5차 지역문화 세미나의 징검다리를

건너 제6차 세미나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서 꽃핀 양명사상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꿈을 꾸어본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는 정인제 교수의 헌신적 강연이 없었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정으로 양명학을 연구하신 원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양명학과 정제두 선생의 사상을 배웠기에 세미나를 기획할 수 있었다. 본 세미나 자료집에 주제 발표하는 이들의 원고와 함께 정인제 교수의 강연 녹취록을 실어, 시흥시민들이 양명학과 정제두 선생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정인제 교수님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시흥양명학연구회 전남훈 회장님과, 시흥향토문화연구소 유한형 소장님께서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강연을 듣고, 발표까지 함께 하심은 아주 뜻 깊은 일이다. 이러한 성의(誠意)의 집적으로, 향후 시흥시가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을 발전시킨 현대 신유학의 성지가 되어, 사상마련(事上磨鍊)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양지(良知)구현으로 만가성인(萬家聖人)이 되기를 빈다.

2016년6월8일

목 차

1. 추곡(楸谷) 정제두(鄭齊斗) / 전남훈 / 11
2. 주자학과 양명학 비교 / 유한형 / 19
3. 양명학 입문 / 김선옥 / 27
4. 정제두의 한국 양명학 / 정원철 / 39
5. 양명학의 정신 / 정인제 / 81

추곡(楸谷) 정제두(鄭齊斗)

-추곡선생의 청년시절 고찰-

전남훈 (시흥양명학연구회장)

추곡(楸谷) 정제두(鄭齊斗)

-추곡선생의 청년시절 고찰-

전남훈¹⁾

1. 유년기

선생 휘(諱)는 제두(齊斗)²⁾요, 자(字)는 사양(士仰)이고, 성은 정씨(鄭氏)이며 영일인(迎日人)인데, 고려(高麗) 때 추밀지주사(樞密知奏事) 습명(襲明)을 시조(始祖)로 하였다. 포은(圃隱) 선생, 휘 몽주(夢周)에 이르러서 비로소 크게 나타났으니 벼슬은 시중(侍中)이었으며 이름은 일월(日月)과 빛을 닮았다.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휘 종성(宗誠)이 이조 참의(吏曹參議)였고 증조, 휘 근(謹)은 승문박사(承文博士)에, 증직(贈職)은 영의정이었으며 조(祖), 휘 유성(維城)은 우의정에, 시호는 충정공(忠貞公)이었다. 고(考) 휘 상징(尙徵)은 진사(進士)인데 증직이 좌찬성(左贊成)이었고, 비(妣)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는데 호조 판서 호암(浩庵), 휘 기초(基祚)의 따님이었다.³⁾

선생께서는 인조(仁祖) 27년 6월 27일 유시(酉時)에 한성부 반석방(漢城府 盤石坊) 집에서 태어났다. 5살 되던 해 부친 상징(尙徵)께서 돌아가시니 안산 추곡(楸谷), 지금의 시흥시 추곡마을에 장례를 모시고 할아버지 충정공(忠貞公)에 의해 피양(被養) 되었다.

선생께서는 어려서 늘 적에도 장자의 교육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았다. 백

1) 성재, 시흥양명학회장, 전 초대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성재서당 대표, 서예가
2) 정제두(鄭齊斗, 인조27년, 1649~영조12년, 1736) 하곡과 더불어 추곡(현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은 안산거주시기의 호이다. 박세채와 윤증의 문인이며 양명학(陽明學)에 조예가 깊었다.
3) 『하곡집』, 행장(行狀) 참조

부(伯父) 찬성공(찬成公)이 항상 기특히 여기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이와 같을 수 있나 하고 말씀하셨다. 일찍이 할아버지 곁에서 모실 때도 가지고 놀 장난감이 있으면 조심하며 명령이 있어야 취하였고 이미 취한 장난감은 조심하며 본디 있던 곳에 놓고 물러났다.

세상에는 탐나는 것을 갖으려는 아이들이 부끄럽게도 많았으니 능히 밖으로 착한 소문이 전해졌다. 선생께서는 10살 때부터 이상익(李商翼) 교관(敎官)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때에 동춘당(洞春堂) 송준길(宋浚吉⁴)1606~1672) 선생이 입경 하였다. 이상일 선생께서 송준길을 만나 사양(士仰)의 스승으로 재가 부족하다 하니 송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련기(瑚璉器)⁵)로다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다.

선생이 16살 되던 해 할아버지(忠貞公) 마저 돌아가시니 강화 진강(江華鎭江)에 장례 모시고 그해 정월(正月)에 파평 윤씨, 윤홍(尹鴻)의 딸과 결혼하였다.

4)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세영(世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응서(應瑞)이고, 아버지는 영천군수(榮川郡守) 이창(爾昌)이다. 어머니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은휘(金殷輝)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이이(李珣)를 사숙(私淑)했고, 20세 때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생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받아 1630년 세마(洗馬)에 제수되었다. 1659년 병조판서·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우참찬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 문제로 이른바 예송(禮訟)이 일어났는데 송시열이 기년제(基年祭 : 만 1년)를 주장할 때 그를 지지하였다. 이에 남인(南人)의 윤휴(尹鑄)·허목(許穆)·윤선도(尹善道) 등의 3년설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단 기년제를 관철시켰다. 1673년 1월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나 1674년 효종의 왕비인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죽자 또 한 차례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인의 기년제설이 서인의 대공설(大功說 : 9개월)을 누르고 남인의 주장을 관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1675년(숙종 1)허적(許積)·윤휴·허목 등의 공격을 받아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이어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관작이 복구되었다. 송시열과 동종(同宗)이면서 학문 경향을 같이한 성리학자로 이이의 학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일찍이 김장생이 예학의 종장(宗匠)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1681년 승현서원(崇賢書院)에 제향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같은 해 김장생과 함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이 건의된 이래, 여러 차례 상소가 있는 다음 1756년(영조 32) 문묘에 제향되었다. 충현서원(忠賢書院)·봉암서원(鳳巖書院)·둔암서원(遯巖書院)·용강서원(龍岡書院)·창주서원(滄洲書院)·흥암서원(興巖書院)·성천서원(星川書院) 등에도 제향되었다. 저서로 《여록해 語錄解》·《동춘당집》이 있으며, 글씨로는 부산의 충렬사비문(忠烈祠碑文), 남양의 윤계순절비문(尹啓殉節碑文)이 있다.

5) 공자가 자공(子貢)의 인물됨을 평하여 호련이라고 한데서 우수한 인물의 비유로 쓰임. 서직(黍稷)을 담아 종(宗廟)에 제사하는 그릇, 귀중하고 화사한 인품을 가진 인재에 비유한 것이다.

2. 성장기의 깨달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는 이미 큰아버지 사촌형이 다 돌아가시고 종손자도 병약하여 선생께서 봉사를 맡게 되어 충정공의 기년상을 장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모시었다.

선생의 나이 20세⁶⁾와 24세⁷⁾에 별시초시(別試初試)에 급제 하였다. 한 집안에서 형제가 다 녹봉을 받을 수 없으니 동생 제태(濟泰)가 잘하고 있으니 과거보기를 폐하여 주시옵소서하고 어머니께 청하니 모부인(母夫人)께서 허락하시었다. 이에 선생은 바깥세상의 물욕에 마음을 구하지 않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항상 부족한 듯 모자란 듯 학문에 뜻을 두고 심취하였다.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⁸⁾ 선생 문하에서도 출입하였다. 분적(墳籍)을 탐사하고 육경(六經)을 연구하며 백가중류지서(百家衆流之書)에 널리 이르러 음양성력(陰陽星曆), 병농의약(兵農醫藥), 감여복서(堪輿卜筮) 등 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마침내는 심오한 경지에 들어 서책은 오랫동안 보지 않고 총명을 잃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학문을 구하는 이에게도 항상 입을 다물고 말씀이 없으셨다.

23세 되던 해 11월 부인 윤씨가 죽으니 안산군 추곡(楸谷), 즉 현재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에 장사지내고 26세 되던 해 남양서씨 군수 한주의 딸을 계비로 맞았다.

28~29세에는 두 번에 걸쳐 영동 우계(羽溪) 마을에 여행하였다 이종형 김몽신과 사촌동생 보신 등과 함께 머물러 지내기로 약속하고 이와 같이 동반

6) 9년 무신 선생 20세 겨울에 별시(別試)로 초시(初試)에 합격하였다. 성기책(聲氣策)이란 책문(策文)으로 시험을 치루었다.(九年 戊申 先生二十歲 冬中別試初試 對聲氣策)- 『하곡집』, 연보 참조

7) 13년 임자 선생 24세 가을에 별시(別試)로 초시(初試)에 합격하였다.(十三年 壬子 先生二十四歲 秋中別試初試) - 『하곡집』, 연보 참조

8) 노론의 영수로 윤지완, 남구만 등과 정국을 주도하였다. 1651년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그의 큰아버지 호(濠), 중부 미(漣),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이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한 연유로 그의 사승관계(師承關係)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여 초연히 머물고 있는데 모부인(母夫人)이 연세가 많아 더 이상은 외지방에서 머무르며 뜻을 펼 수가 없었다.

32세 되던해 영의정 김수항⁹⁾이 벼슬을 추천하였다. 선생의 경문이 밝다하여 수행함이 마음과 머리가 예리하다하고 사포서 별좌(司圃署別坐)로 34세에는 종부시 주부(宗簿侍主簿)로 추천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야인으로 머물렀다. 집안의 어른들도 허락하였다.¹⁰⁾

선생이 학문이 나이가 먹으면서 병이 깊은데도 언어가 끊기고 학문에 크게 힘쓰며 깊은 연구로 몸과 정신이 수척하게 여위었다.

3. 맺는말

태어나면서 총명하던 선생께서는 네 살 때 아버지를 잃고 16세가 되기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사촌형이 모두 돌아가시니 외롭게 가문의 종손노릇을 하게 되니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부친이 그리워 비석거리를 거쳐 추곡 마을을 찾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 시흥의 후예들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이미 이때부터 양명학의 사상적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9) 1629(인조 7)~1689(숙종 15).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김상헌의 손자로 가학(家學)을 계승했으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宋浚吉)과 증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서 한 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자, 소론 명류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680년 이른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남인들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복귀, 영의정이 되어 남인의 죄를 다스리는 한편, 송시열·박세채(朴世采) 등을 불러들였다. 이후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자, 남인의 명사를 함부로 죽였다고 장령(掌令) 김방걸(金邦杰) 등이 탄핵해 진도로 유배, 위리안치되었다. 뒤이어 예조판서 민암(閔黯)을 비롯한 남인 경재(卿宰) 수십 인의 공격과 사헌부·사간원의 합계(合啓: 함께 계문을 올림)로 사사되었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駢麗文)에서는 당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혔다. 또한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해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10) 9년 계해 선생35세 이 해 조의(朝議)에서는 대직(臺職)을 가지고 선생을 처우(處遇)하려고 했으나 이형(姨兄) 심응교(沈應敎) 유(濡)가 때마침 삼사(三司)에 있었기에 선생은 병이 있고 또한 어머니이 늙으시어 봉양하여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벼슬하는 것이 불안함을 염려하여 제공(諸公)에게 애써 부탁하여 중지케 하였다.(九年 癸亥 先生三十五歲 是歲朝議擬以臺職處先生 姨兄沈應敎濡時在三司。以先生病且親老。慮其跡不安於京。力言諸公而止之)- 『하곡집』, 연보 참조

오늘날 주자학보다는 추곡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實心實學)이 더욱 중요한 교육적 가치임을 추론할 때 선생의 청년시절의 깨달음을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비교

유한형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주자학과 양명학의 비교

유한형¹¹⁾

I. 들어가는 말

한국양명학의 태두인 추곡¹²⁾ 정제두(鄭齊斗) 선생은 현재의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마을(추곡, 楸谷)에서 41세부터 20여 년간 기거하면서 한국 양명학의 핵심 저서인 『학변(學辯)』과 『존언(存言)』을 저술하였다. 가래울 마을을 떠나 강화로 간 정제두는 그곳에서 경학(經學)에 전념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현재의 시흥에서 한국양명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리학(性理學)과 뿌리를 같이하는 신유학이지만, 사민(四民)이 평등하다는 민학(民學)인 이유로, 조선시대 이단으로 취급하여 배격하던 사상을 현재의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합한 사상임을 직시하고, 정제두 선생이 20년간 연구에 몰두하던 곳인 시흥시가 한국 양명학의 종주임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어르신문화활동가 ‘추곡서원’에서 정인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양명학의 정신’이라는 특강을 들으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향교와 같이 주자학적 중심체계속에서 한국양명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유학에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신유학인 주자학(성리학)과 비교를 통해 양명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인천향교 수석장의, 시흥문화원부원장

12) 추곡은 41세부터 20년간 살며 강화로 이거하기까지 살던 마을의 이름으로 하곡(강화) 이전의 호(號)이다.

II.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

주자학과 양명학 모두 이(理)를 강조하는 관념론에 속하는 사유체계이다. 다만 양자를 구분한다면 주자학은 내 밖의 사물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객관적 관념론이고, 양명학은 마음에 주목하여 주관적 관념론이다.

신유학은 성인이 되는 것이 목표(聖學)인데 그 방법이 격물치지이다. 하지만 격물치지의 해석이 주희(주자)¹³와 왕양명(왕수인)은 다르다. '격물치지'는 '사물에 나아가(格物)' '앎을 완성한다.(致知)'는 뜻이다. 이 말만 보면 앎의 대상이 사물이지만 사실 궁극적인 탐구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 속에 들어 있는 이(理)다. 그렇기 때문에 '격물궁리(格物窮理)'이기도 하다. 주자는 세상만물은 모두 각각의 이를 지니고 있고 사람에게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신령한 앎의 능력이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탐구해 가다 보면 마침내 하루아침에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사물의 겉과 속, 정교하고 미세한 사물과 거친 사물 할 것 없이 사물의 이치가 다 깨달아질 것이며 내 마음의 온전한 본 모습과 그 마음의 활용이 밝아지지 앎이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젊어서 주자학을 공부했던 왕수인은 주희의 격물치지 이론을 직접 실험해 보았다. 1주일 동안 대나무 앞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대나무만 바라보며 대나무의 이치를 탐구하다가 병을 얻었다. 그런데도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나는 나대로 있음을 경험하였다. 왕수인이 깨달은 것은 내 마

13) 주희(Chu Hsi, 朱熹, 1130~1200. 중국, 남송(南宋) 푸젠 성[福建省] 우계(尤溪).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중국 사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주희는 『논어』와 『맹자』에 관한 집주(集注)를 저술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나타냈는데, 중국·한국·일본 등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주희는 역사에도 깊은 흥미를 보여 사마광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의 축약과 재편집을 지휘, 1172년 『자치통감강목』을 완성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읽혔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최초로 간행된 중국역사서로서 무아리아크 드 마야가 쓴 『중국통사』의 토대가 되었다. 주희는 지방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18세 때 대과에 급제했는데, 당시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조정에 대한 주희의 정치적 비판과 이성적인 자세는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의 철학체계 만큼은 유일한 관학으로 인정받았는데, 이같은 풍조는 19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음이 대나무에게 갈 때 대나무가 비로소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타고난 양지(良知)를 잘 기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양명은 심·성·리·기(心·性·理·氣)에 대해서 심(心)의 본체를 성(性)이라 규정하고, 천리(天理)라 말하기도 하며, 또 심(心)은 곧 성(性)이요 성은 곧 리(理)라 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氣)는 곧 성(性)이요 성은 곧 기(氣)로서, 본래 성과 기는 나눌 수 없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명학에서는 심·성·리·기가 하나가 되는 일원론의 체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았다. 왕양명은 사물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만의 이론체계를 확립시켰으며 도덕원리를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격(格)을 정(正)으로 해석하고 격물을 내 마음 속의 부정을 제거하는 일로서 심 본체의 올바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같이 왕양명이 격물을 정물(正物)로 해석한 것은 마음이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확립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는 주체적 자각을 실천 궁행으로 연결한 것이라 하겠다.

주자학과 다른 새로운 견해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물(物)에 대한 견해가 다른 데에 있다. 주자학에서는 물(物)에 대해 사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대상 사물에서 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격을 지(至)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명학에서는 뜻이 있는 곳이 바로 물(物)이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뜻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있으면 어버이 섬기는 일이 곧 물(物)이 되며, 뜻이 임금을 섬기는데 있으면 임금섬기는 일이 곧 물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마음 밖의 리와 물(物)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뜻을 두는 바가 물(物)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내 마음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데 있으면 어버이에게 효도함이 곧 물(物)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양명학에서 물(物)은 대상의 사물이 아니며 심과 밖의 사물이 접하면 작용하는 의지(意志)인 것으로 의지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곳에 물(物)이 있게 된다. 따라서 양명학에서 격물(格物)은 정물(正物)이다. 내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여 의지를 바르게 하는 올바른 행위인 것이다. 이는 양명학이

격물의 물은 사(事)로서 그 모두가 다 심(心)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물(物)은 외재적 사물이 아니라 내재적 의지의 작용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있어서도 양명학과 주자학은 차이를 드러낸다.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는 공맹시대에 걸쳐 인간의 덕목이자 유교의 핵심인 오륜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삼강은 한나라 때 생겼는데 이는 법가적 요소와 음양과의 이념이 유교 속에 들어온 개념이다. 강(綱)이라는 것은 벼리, 그물,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뜻으로 강력한 통치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주종관계를 중시하는 삼강은 주자학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양명학에서는 그 관계설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은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다르게 나타는데 주희는 백성을 사민(四民)이라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명확히 구분지어 백성을 질서 속에 지배하려는 신민(新民)이 드러내는데 반해, 양명은 백성 모두 평등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도에 통달할 수 있다는 친민(親民)과 이업동도(異業同道)의 사상을 강조했다.

이렇듯 주자학에서는 어느 현상을 바라볼 때 움직이는 현실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설명하려는 정태적(靜態的) 성격이 강한 반면, 양명학은 현실 자체를 받아들여 이와 기가 뗄 수 없는 동태적(動態的) 성격을 띠고 있다.

Ⅲ. 맺음말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현대 우리 사회는 서구화가 되었으나, 생활이나 사유방식은 유교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주자학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서양과 고금을 아우르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주자학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에서 살고 있다. 이(定理)를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여, 타자를 흑백논리로 비판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성(知性)만을 강조하고

덕성(德性)을 경시하였다. 덕성이 없는 현대화는 자연 파괴와 생명경시의 위험을 띠며, 덕성이 없는 이데올로기는 맹목과 분규를 야기한다. 주자학을 통해 도덕지상주의를 강조하고 지선(至善)에 이르는 것만을 강조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이다. 그러나 양명학은 윤리적이면서도 심미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도가, 불교적 사유도 양명학의 철학 속에 수용하였다. 양명학의 기본적 철학은 양지이다. 양지(良知)는 바로 마음이 도덕적 주체인 본심을 가리키고 양심의 다른 표현이기도하다. 옳고 그름(是非), 좋고 싫음(好惡)을 자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양지이며, 이것이 천리(天理)이다. 심이 바로 리(心卽理)이기 때문에 천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체가 천리이다. 반면 주자학에서는 양지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心)은 성(性)과 정(情)이 있을 때 기준을 성으로 본다. 마음은 리(理)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 판단이 없다. 마음밖에 있는 리가 예(禮), 외적인 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양명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시비판단을 양지(良知)에 따라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양명학에서 양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자기가 알고 행하는 것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인 것이다. 성즉리(性卽理)에서 리를 따르는 것, 밖에 있는 것을 정리(定理)라고 하고 양명학에서는 자기 판단으로 행하여 모두 화합되는 것을 조리(條理)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주자학적 세계관으로 살면서, 정답을 밖에서 구하고, 정해진 이치를 따르는 것을 바른 길로 알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진정한 주체이자 인권을 존중하는 전래의 양명학을 현대에 수용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자유, 평등정신과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인간과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올바른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양명학 입문

김선옥 (시인)

양명학 입문

김선옥

1. 들어가는 말

시흥문화원 인문학 강의 중 하나인 <양명학의 정신>을 문화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방송대 철학과목 수업 때 잠깐 들어 본적이 있는 양명학은 나에게 아직 생소한 것이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기회라 여기며 반갑게 응했다. 양명학이란 무엇이며, 현재 양명학 정신을 되새기는 이유와 양명학은 어떤 공부할 가치가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학문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양명학의 정신> 저자이신 정인재 선생님의 직강으로 선생님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강의 열정을 보여주시며 여유롭고 편안하게 어려운 철학용어들을 풀어주셨다. 고려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타이완 중국문화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양명학회 회장도 역임하시며 오래전부터 중국 철학사를 번역하신 석학의 내공을 발휘하시어 짧은 기간에 시공을 초월한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 수업방식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와 달리 예습을 많이 하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먼저 찾아 질의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후일 잊지 않고 되돌아 볼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2. 양명학 입문

1) 양명학이란 무엇인가

흔히 심학, 육왕학이라 불리어지는 양명학은 송나라 시대 주희가 제창한 성리학을 비판하며 명나라 때 왕수인이 만든 것으로 사상적 기본 되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고 지극한 천리로 여기고 이 천리대로 행하면 못 이룰 바가 없다며 천리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스스로 행동을 바로잡고 즉시 실천하며 수행하는 지행합일을 통해 개개인을 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대동사회 건설을 꿈꾸었다.

외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판단을 따르도록 지나치게 윤리적 틀을 제시한 지배적 성향이 강한 성리학 대신, 내적인 양심으로 간주되는 양지를 밝게 드러내는 수행법으로 개개인의 자아를 중시하여 개인을 자율적이며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는 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싫어하는 감성적 영역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함(至善)에도 사리사욕을 떠난 무선무악의 초월적 경지를 언급함으로써 영성적 영역(德性)까지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양명학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건국이념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신분사회의 특성상 하급계층의 개인을 지배계급의 양반과 동등하게 여기는 양명학은 이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후 민중의 자각과 더불어 양명학에 많은 선비들이 관심을 갖았으나 이들은 사회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자로 여겨져 모두 처형되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도 양명학자 하곡 정제두는 조선의 성리학의 대가 퇴계, 율곡과 대비되는 한국적 양명학인 하곡학을 세우고 음지에서 제자를 길러 후학들에게 근근히 전수되어 근대 백암 박은식과 위당 정인보에게 까지 그 맥락이 이어졌다.

가) 양명학의 시대적 위치

간략하게 중국의 역사와 주된 사상적 흐름을 보자면, 기원전 2천여 년 전 하, 상, 주 3대 고대 나라는 나름의 도를 전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말엽에서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통일하기 직전 500년간 춘추전국시대는 수많은 나라가 명멸하는 약육강식의 혼돈의 세상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한 제자백가시대를 이루었다. 이때 공자와 맹자는 유가사상을 강조하며 활동하였다. 이때는 주로 대화체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방식이며 이어 한나라 시대에 주공이 시, 서, 역, 예, 춘추인 5경을 편찬하여 경전유학이 대두되었다. 기원후 220년 위, 촉, 오 삼국시대와 동진 서진과 16국 시대엔 도가가 성행하고 이후 남북조 시대엔 신도가인 현학이 성행하였다. 581년 수나라가 통일하고 이후 618년 당나라가 통일한 수, 당 시대엔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와 성행하였다. 당나라가 망한 907년 이후 백여 년 동안 5대 16국으로 분열된 시대를 지나 송나라가 다시 통일하였을 때 유교를 철학적으로 체계화 한 성리학(道學)이 시작 되었으며 북송시대를 거쳐 남송시대 주희(1130~1200)가 사서집주를 펴냄으로써 하상주로부터 시작한 도통을 잇는 유가철학의 체계를 완성한 주자학이 시작되었다. 1279년에 세운 원나라 때 주자학이 관학이 되었고 1368년 세운 명나라 때 왕양명(1472~1529)이 주자학을 비판하며 새유학인 양명학을 시작하였다. 이후 1644년에 세운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달하였고 현재 중국은 서양철학을 접목한 신유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 양명학 발생의 배경

명나라 중기 이후 고착된 체제를 고수하면서 정해진 이치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주자학적 관념 속에 백성을 가두고 자신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감투에만 연연하는 유명무실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각종 민란이 발생한다. 또 대륙의 남방지역은 해안지대의 장점을 살려 중앙정부와 별개로 활발하게 무역 및 상업 활동을 펼치며 초기 자본주의와 유사한 상품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농업보다 수공업, 상업이 부각되는 전문 소비도시도 형성되고 자본주의적 생산 및 경영방식들도 도입되었다. 이로부터 개인주의 사고가 발달하고 기존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던 주자학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 명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세태와는 달리 오랫동안 지속된 경직된 학문을 탈피하고자 그나마 자성이 남아있는 학자들에 의해 주자학의 전환이 모

색되었다.

다) 양명학 창시자 왕수인의 생애

호 양명. 이름 수인(守仁). 자 백안(伯安). 시호 문성(文成). 저장성[浙江省] 여요(餘姚) 출생이다. 관직에 나간 부친을 따라 베이징[北京]에서 자랐고, 28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당시의 관학이었던 주자학(朱子學)을 배웠으나 만족하지 않았고, 선(禪)이나 노장(老莊)의 설에 심취한 때도 있었으나 도우(道友)인 담감천(湛甘泉)을 만난 무렵부터 성현(聖賢)의 학을 지향하게 되었다. 35세에 병부주사(兵部主事)로 있을 때 환관 유근(劉瑾)의 노여움을 사 귀주용장(貴州龍場)의 역승(驛丞)으로 좌천된 것이 학문적 전기가 되었다.

원래가 병약한 몸으로 기후불순한 만지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밤 석관(石棺)속에서 깨친 것이 심즉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 만물일체(萬物一體)였다. 이 용장에서의 득도(得道)는 37세 때의 일로서, 그 후 중앙으로 소환되어 순조로운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로 장시[江西]·안후이[安徽]·저장[浙江] 각성의 지방관으로 있었는데, 비적의 토벌과 영왕(寧王) 신흔(宸濠)의 난 평정에서 활약하였다. 격무 중에도 항상 강학(講學)을 멈추지 않았으며, 각처에 학교를 설치하여 후진 교육에 진력하였다. 49세에 처음으로 치양지(致良知: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선천적인 판단력이나 논리적인 감수성 등을 실현하는 일)의 설을 제창하고 강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 일문은 더욱 융성해졌다. 왕심재(王心齋)·전서산(錢緒山)·왕용계(王龍溪)가 입문하였고, 《전습록(傳習錄)》이 계속 간행되어 《양명문록(陽明文錄)》의 간행을 보게 되었으며 양명서원이 건립되었다. 양명학파로서 명대(明代)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기초가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56세 때 광둥·광시의 묘족(苗族)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병든 몸으로 출전하여 진압한 후 돌아오는 길에 과로와 고열로 죽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출발 전야에 양명학의 진수를 논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4구결(四句訣)이 있는데, “無善無惡是心之體(무선무악시심지체), 有善有惡是意之動(유선유악시의지동), 知善知惡是良知(지선지악시량지), 爲善去惡是格

物(위선거악시격물): 마음의 본체는 본래 선과 악이 없는 것이지만, 선과 악이 나타나는 것은 뜻[意]의 작용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나타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아는 것이 양지(良知)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격물(格物: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바로잡음)이다”가 그것이다.

라) 양명학의 핵심 사상

① 격물치지: 왕양명이 37세에 뱀과 독충이 들끓는 험지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성인이라면 이런 곤경에서 어떤 길을 찾았을까라는 깊은 사색 끝에 크게 깨달은 바이다. 성인의 도는 내 본성이 스스로 넉넉하면 되는데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주자처럼 사물에 다가가서 이치를 궁구한다해도 자신의 뜻은 어떻게 참되게 하겠는가며 인식론적 회의론에 부딪혀 인식론으로는 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사물과 나의 마음과 의미연관성 생각했다.

격물이란 마음이 발동하여 생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으로 격(格)은 주희가 풀이한 것처럼 이른다(至)는 뜻이 아닌 바로잡는다(正)는 뜻이며 물(物)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즉 내 마음의 뜻(意)이 발동하여 생기는 일로 해석했다.

치지(致知)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천리인데 내 마음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며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여 얻은 사물의 이치를 조리라고 하여 사물에 정리가 있다고 주장한 주자학과 대비된다. 사물의 정리를 궁구하여도 행하지 못하는 주자학의 격물치지와 달리 강한 실천력을 강조한 것이다.

② 심즉리: 양명은 육구연의 心則理(심즉리) 즉 마음이 바로 이치라는 주장에 흥미를 가졌다. 그는 마침내 理(리)는 본원적인 것으로 밖에 있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③ 양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고 있는 본성으로, 이를 통해 선악과 시비를 판별하는 도덕준칙일 뿐 아니라 호오를 판단하는 심미적 도덕법칙이라 했다. 양심과도 비슷한 양지는 거룩한 자기 준칙이며, 참된 자기이며, 자기 혼자만이 아는 독지이며, 미발의 알맞음(조용함도 움직임도 관계없이 상존하는)이며 가장 훌륭한 것(至善)것이며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이며 영묘한 밝음이며 즐거움의 본체라 했다. 또 성인과 보통사람이 모두 같이 가지고 있고 조화의 정령이라 했다. 주자학이 양지를 견문에서 얻은 좋은 지식 정도로 해석할 때 양명은 양지를 천리로 간주하고 견문은 그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 자체가 천리(心卽理)라고 했다.

④ 치양지: '치'는 이른다는 뜻으로 "마음속에 있는 양지에 이른다"는 게 치양지의 의미다. 주자는 기본적으로 마음 밖의 바깥 사물속의 이치 탐구(격물궁리)를 중시하는데 반해 양명은 그것을 반대하고 자신의 심즉리를 발전시킨 치양지를 수양론의 측면을 강조했다.

⑤ 지행합일: 지와 행은 본래부터 하나라는 관점이다.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며 실행하지 않는 앎은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인식과 실천은 마음의 두 측면으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은 단순히 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양명학의 문제점

심즉리를 주장한 양명학은 사람의 마음이 곧 천리라는 것은 기본 믿음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정신영역이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잘못된 것을 즉시 없애는 수행법은 그 실천에서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어떻게 물리치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 만큼 강력한 약육강식의 세계와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에서 생존의 위태로움까지 느끼는 공포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성인의 마음으로 심즉리를 여유롭게 실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성인은 자기욕심대로 사는 범인보다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현대인에게 어필할 매력이 필요하다.

2) 오늘날 양명학이 주목 받는 이유

가) 민주주의와 양명학

조선과 같이 신분주의 사회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벽이 되어 그 나름의 질서를 확보하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데 성리학적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와 수직 상하관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삼강오륜의 유교적 가르침에서 삼강을 해치는 결과로써 오륜을 말하고 있다. 부위자강 군위신강 부위부강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 수직관계로 묶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반해 양명학은 모든 인간은 양지를 가진 평등한 존재로 성인과 범인의 구분은 단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양지의 실현을 이루느냐 실현하지 못하고 마느냐에 구분될 뿐, 성인과 범인은 애초에 차이가 없다는 인간평등사상을 주장하였다. 주권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사상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 물질만능주의와 양명학

공평하게 일인 일표의 선거제도가 있어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신분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없을지언정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의 크고 작음에 따라, 지식의 습득 여부에 따라 권력이 생기고 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은 자명한 일이다. 만물은 하나로 통하며 마음의 본체인 양지는 이런 현상을 옳지 못하다고 여기며 싫어한다. 그렇지만 자기 하나뿐이야 하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양지의 실현인 치양지를 못하고 만다. 개개인이 모두 양지의 실현으로 대동사회를 꿈꾸던 양명학은 이러한 사회의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사상적 단초가 될 수 있다.

다) 역동적이며 급변하는 사회와 양명학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지나고 있다. 10년 뒤 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사회에 각종 사건사고들도 빈발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마다 내 마음의 천리인 양지에 따라 알맞은 조리를 찾아내고 그 실천력을 강조한 양명학적 철학은 사리사욕을 배제한 평등한 사회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라) 생태환경주의와 양명학

“즐거움은 마음의 본체다. 어진 사람의 마음은 천지만물과 일체이므로 기쁘게 만물과 화합하며 원래 간격이 없다. 때에 맞게 익히는 것은 이 본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쁘다는 것은 본체가 점차 회복되는 것이다 벗어 찾아온다는 것은 본체가 기쁘고 화창한 기상이 본래 이와 같아서 애초에 더할 것이 없다 것이다.”- (박상리 왕양명 예술론에 대한 일시론, 양명학의 정신 재인용) 이 인용문을 볼 때, 오늘날 생태환경과 파괴에 대해 자신이 망가지듯 일체감을 느낀다면 몹시 괴로울 것이며 사람들은 기쁨의 회복을 위해 생태환경의 보존에 힘쓰게 될 것이다.

3) 양명학이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나

위에서 살펴보듯 오늘날 심각한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작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불어넣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양명학과 하곡학

조선 심학인 하곡학은 조선 중기에 하곡 정제두가 양명학을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학문을 닦아 후학들을 가르치며 성리학의 비주류로 존재해 오늘날에 이어졌다. 하곡 정제두는 서경덕 문하생이며 심학 수양공부에 일생을 바친 남언경과 병자호란 때 주화과의 대표인 최명길, 계곡 장유의 학설을 계승

하여 조선 심학을 세웠다.

‘조선의 성리학은 양명학과 같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그런데 뒤에 그것을 배우는 이들이 대부분 그 근본을 잃어버렸다..... 주자를 억지로 끌어 맞추어 그 뜻을 쫓아가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서 자신의 사(私)를 이루는 것이다’라며 주자학을 비판하였다. 하곡의 학문은 남의 학설로 기준(정리)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적 기준(양지)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실심실학을 제창했다. 하곡의 실심은 곧 본심이며 양명이 말하는 양지의 다른 표현이다. 그의 학문은 명분과 대의를 내세워 죽음으로 내모는 의리학이 아니라 생명의 내실과 그 원리를 중시하는 삶의 학문이다. 그의 양지 체용도는 바로 이것은 나타낸 것으로 본체와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전개된다. 실리의 본체(仁)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약동하는 생리가 그 끊임없이 낳고 낳는 생명현상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리가 바로 추기급인의 배려정신으로 표현되었다.

3. 나가는 말

짧고 영성하지만 양명학의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 양명학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훑어보고 유가의 르네상스시대라 불리는 송명대 철학계의 거목인 왕수인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았다. 자본주의의 맹아가 보이던 시절 격변하는 사회에서 주자학의 틀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양명학은 동남아 아시아에 퍼져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마음을 모두 성인과 같은 양지가 있다고 여겨 보편성을 갖고 양지를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민본적 희망을 주는 학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양명학인 하곡학을 더 공부하여 생태환경을 지키는 기본사상으로, 또 민주주의의 윤리적 실현을 도울 수 있고, 물질만능시대에 사리사욕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개개인이 터득한 조리를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사회경제체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추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정원철

들어가며

시흥시의 울곧은 발전을 목표로하는 시흥학은 지역의 정신문화유산을 발굴, 조명하여 내외에 알리어, 내적으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적으로는 지역 정신을 상징화하여 여타 지역과 변별성을 찾는 일이라는 개념 하에, 시흥문화원은 지역 전통문화 및 민속을 발굴하여 전승하는 것을 문화원 제일의 사명으로 삼아왔다. 그런 차제에 교육자이시며 향토사학자이신 심우일(소래고등학교 교감, 현 시흥문화원 이사) 선생이 한국 양명학의 태두 정제두 선생이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마을에서 20년간 거처하셨음을 발굴하여 지역에 알렸다. 정제두 선생의 문집인 ‘하곡집’이나 여타 서적에 선생께서 안산에 20년간 거처하시며 한국 양명학의 핵심 저서 ‘학변’과 ‘존언’을 저술하였다고 말하였지만, 그 곳이 현재의 시흥시 화정동임을 밝혀졌다.

시흥문화원은 추곡(楸谷,가래울 마을)을 탐문하여, 정제두 선생의 6대 조상이 가래울 마을에 입향하였고, 정제두 선생이 20년간 거처하시면서 주자학자들과 논변을 주고받은 세거지임을 확인하였다. 정제두와 한국 양명학을 밝혀 지역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시흥시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요람임을 알리는 일을 시작해야 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41세에서 61세까지의 시기에 시흥(당시 안산군)에 거주하시고, 87세에 돌아가실 때는 강화도 하곡에 거처하시고 강화도에 유택을 마련한 연고로 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양명학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정제두 선생의 업적을 기림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시흥시는 한 발 늦게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기 시작하였으나, 선생께서 이끌어 주신 한국 양명학의 사상이 현대 사회를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로 이끄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며, 시흥시가 감히 그 역할을 해내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상가 10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정제두 선생이지만, 일반인에게 정제두 선생의 이름은 생소하며, 동양 철학자나 향교나 서원을 출입하는 유도(儒道)인에게는 양명학이란 학문이 낯설지 않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학문이며 사상이다. 그래서 정제두 선생은 어떤 분이시며, 선생의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또한 중국에서 시작한 양명학은 어떤 학문이며 한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정착되었는지, 또한 현대 신유학으로 발전한 양명학은 어떤 학문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공부의 필요를 느끼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유학(儒學)을 오래 전부터 공부한 사람도 아니요, 한문(漢文)에 익숙하여 원문을 스스로 읽어 해독할 수 있는 자질도 없지만,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인재 교수의 저서 ‘양명학의 정신(세창출판사, 2014년)’과 교수님의 직강을 듣고 양명학에 입문하였다. 이후 몇몇 단행본을 접하였다. 김교빈 교수님의 ‘10인의 한국 사상가 하곡 정제두’와, 정인보 선생의 ‘양명학 연론’, 이상호 교수의 ‘양명우파와 정제두의 양명학’, ‘국역 하곡집’ 등 몇 권의 저작을 들추어보았다. 그 분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지만, 나름대로 시흥지역에서 왜 정제두 선생을 기리고 오늘날에 양명학의 핵심 이론인 ‘양지’를 왜 기려야 하는지, 치양지(致良知)와 사상마련(事上磨鍊), 지행합일(知行合一)과 인성 교육의 관계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참고로 한 저작들이 귀한 연구의 결과들이기에 이 글에서는 그 저작과 원문을 각주로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소주제별로 그 저작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펼쳤다. 시흥 시민에게 현재 한국 양명학회의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는 지를 알리고, 향후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려는 의도이다.

1. 정제두는 누구인가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소개하는 정제두

정제두는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최초로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세론을 전개한 조선 후기의 양명학자이다. 1649년(인조 27)에 태어나서 1736년(영조 12)에 졸한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서울 출신이며,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양(士仰), 호는 하곡(霞谷). 시호는 문강이다.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유성(維城)이고, 아버지는 진사 상징(尙徵)이며,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호조판서 기조(基祚)의 딸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생애와 활동사항>

몇 차례 과거시험에 실패한 뒤 1672년(현종 13)부터는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1680년(숙종 6)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중부시주부·공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688년(40세)평택현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서연관(書筵官)을 비롯하여 상령군수·중부시주부·사헌부장령·사헌부집의에 임명되었다.

1709년(61세)강화도 하곡(霞谷) 으로 옮겨 살았으며, 호조참의·강원도관찰사·동지중추부사·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다. 1722년(경종 2)사헌부대사헌·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성균관좌주·사헌부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726년(영조 2) 이정박(李廷撲)이 그가 양명학을 한다고 배척했으나 영조의 보호를 받았다. 1728년 의정부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736년 세자이사(世子貳師)에 임명되었다.

<학문세계와 저서>

그는 처음에는 주자학을 공부하다가 일찍부터 양명학에 심취하였다. 당시의 도학은 정통주의적 신념에서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했으나,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양명학의 이해를 체계화시키고 양명학과를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 주자학의 권위주의적 학풍에 대해 학문적 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오늘날에 주자의 학문을 말하는 자는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곧 주자를 핑계 대는 것이요, 주자를 핑계 대는 데에서 나아가 곧 주자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그 뜻을 성취시키며,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서 사사로운 계책을 이루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송시열(宋時烈)과 서신을 통해 경전의 뜻과 처신의 의리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고, 스승 박세채를 비롯하여 윤증(尹拯)·최석정(崔錫鼎)·민이승(閔以升)·박심(朴鑾)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양명학의 문제를 토론하였다. 박세채는 「왕양명학변(王陽明學辨)」을 지어 양명학을 비판하고, 그에게 양명학을 버리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제두는 “왕수인(王守仁)의 학설에 애착을 갖는 것이 만약 남보다 특이한 것을 구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연히 끊어 버리기도 어려운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인의 뜻을 찾아서 실지로 얻음이 있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하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민이승과는 여러 차례 만나서 토론을 벌이거나 서신을 통해 조목별로 심즉리(心卽理)·치양지·지행합일·친민(親民) 등 양명학의 문제들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양명학과 주자학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이승에게 왕수인의 글을 초록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와 「여명체용도(麗明體用圖)」를 그려서 양명학의 심성론과 양지론의 도상적 표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리를 받아들여 주자가 마음[心]과 이(理)를 구별하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과 이의 일치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기(氣)의 이원화도 거부하고 이기합일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가 마음과 일치되어 마음 밖에 이가 따로 존재할 수 없게 되기에 이가 공허하지 않고 실실하게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양지의 개념에 대해서 지각이나 지식의 뜻과 구별하여 성체(性體)의 지(知)요, 본연의 선(善)이며, 오상(五常)의 지(知)를 가리

키는 것이라 하여 성의 본체라 하였다. 「양지체용도」에서도 중심의 원 속에 마음의 성과 인의예지(仁義禮智), 마음의 본원과 양지의 본체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바깥의 가장 큰 원은 천지만물인 동시에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는 심(心)·성(性)·정(情)의 관계도 성은 양지의 본체이고, 정은 양지의 작용이며, 마음은 바로 양지의 전체라 이해하였다. 또한 지행합일설에 대해서도 지와 행을 둘로 나누어 놓는 것은 물욕에 가려진 것이라 하고,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이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황과 이이의 성리설도 비판하면서 양명학의 확립에 전념하였다. 아들 후일(厚一)을 비롯하여 윤순(尹淳), 김택수(金澤秀), 이광사(李匡師) 형제 등이 그의 문인으로서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그가 속하는 소론의 가학으로서 학파를 형성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못한 채 계승되어갔다. 저서로는 양명학의 치양지설(致良知說)과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받아들여 저술한 『학변(學辨)』·『존언(存言)』, 경전 주석서인 『중용설』·『대학설』·『논어설』·『맹자설』·『삼경차록(三京筭錄)』·『경학집록』·『하락역상(河洛易象)』, 송대 도학자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인 『심경집의(心經集義)』·『정성서해(定性書解)』·『통서해(通書解)』 등이 있다.

(2) 백과사전에 누락된 사항

<시흥시에 거주한 20년 기록 누락>

하곡집을 국역한 윤남한의 ‘하곡학의 기본 방향과 단계성’이라는 논문과 ‘하곡 연보’에 나타난 글을 근간으로 하여 아래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누락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하곡집과 여러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정제두는 평택현감을 그만둔 해인 1688년(41세)에 6대조부터 세거한 안산군의 추곡(가래울마을-현재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 소재, 하곡 연보에는 안산의 섬중에 살았다고 쓰여 있어, 바닷물이 드나들던 외딴 곳임을 알 수 있다)에서 1709년 강화도 하곡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다. 추곡(楸谷)에 거주하던 20여년의 시기에, 스승

박세채, 윤증, 친구 민이승, 박심, 최석정과 주자학과 양명학에 관한 논변을 주고받았으며, 양명학의 치양지설(致良知說)과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학변(學辨)』·『존언(存言)』을 저술하였다. 정제두는 추곡(楸谷) 거주 시기에 가까운 이들을 대거 이별하는 불운을 겪었다. 숙종 20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에는 스승 박세채가 세상을 떠났다. 그 이듬해인 숙종 22년에는 정주학과 왕학에 관한 논변을 주고받던 절친한 친구 민이승이 세상을 떠났다. 다시 이년 뒤에는 동생 정제태가 세상을 떠났고, 다시 이년 뒤에는 부인 서씨도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8년 뒤, 숙종 34년(60세)에 절친한 친구 박심(안산 거주)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제두는 추곡을 떠날 결심하였다. 숙종 35년(61세)에 소론계가 정권에서 배제되던 상황에서 장손이 요절하자 그 해 여름에 전격적으로 강화도 하곡으로 은둔하였다. 강화 이거 후에는 양명학에서 다시 경학과 경제학에 관한 저술 및 활동을 하였다.

<‘추곡’의 호 누락>

정제두 선생은 강화도 하곡에 거주하던 때에 하곡(霞谷)선생이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나, 하곡에 가기 이전에 스승 및 친구들과 논변을 즐길 때에는 추곡(楸谷)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하곡이라는 호는 정제두 선생이 61세 이후 강화도에 은거한 이후로 사용한 호이며, 그 이전 안산 추곡(현재의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마을)에 거주하며 정주학과 양명학 논변을 하던 시절에는 추곡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정인보 선생이 짓고 홍원식, 이상호가 번역한 ‘양명학 연론’에 정제두의 제자인 이광신과 동문인 김택수가 쓴 제문(祭文)에는 추곡이라는 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양명학연론 229쪽-그러다가 추곡(楸谷)의 눈 속에서 다행히 춘풍을 만나 괴로워서 하지 못하던 말을 밝혀주시니, 갑자기 나를 덮고 있던 의심이 벗겨진 듯하였다.)

2. 양명학은 어떤 학문인가

역시 한민족문화백과사전에 올려진 내용을 기초로 양명학을 돌아본다. 포괄적으로 응축한 내용이지만, 양명학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수용한 점에서 유용하다. 이후의 양명학과 한국양명학, 치양지와 발본색원의 내용이 겹치지만, 일반인들이 믿고 접하는 백과사전의 내용과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펼쳐 놓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양명학에 대한 접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아주 적은 몇몇 학자와 그 주변 사람들만이 양명학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에, 약간의 중복에 대해서는 양명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로 이해하였으면 한다.

<주자학의 대안으로 시작한 양명학>

양명학은 명나라의 왕수인(王守仁, 호는 陽明, 1472~1529)에 의해 주창된 유학의 한 계통으로, 격물궁리(格物窮理)를 추구하는 주희(朱熹)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인 이학(理學)과 대립하는 간명직절(簡明直截)한 심학을 완성해 치양지학(致良知學)을 창조하였다. 왕수인은 송의 육구연(陸九淵)과 명의 진헌장(陳獻章)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였다.

왕수인은 맹자의 양지를 심의 주체로 세워 공·맹에서 논의되었던 심(心)을 형이상학적 위치로까지 고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불학(佛學)의 심론을 원용하면서도 이에 유학 본래의 천명, 천도 관념을 접합시켜 일기유통상에서 만물일체관을 확립하였다. 인(仁)을 조화생생의 이(理)로 해 양지의 조화정령과 결부시킴으로써 인간의 도덕성과 주체성을 내재적으로 확립하고, 양지의 영명(靈明)을 통해 우주적 질서까지를 확립하려 하였다. 셋째 《대학》의 격물을 궁리가 아닌 치양지(致良知)로 해석함으로써 사변적인 이학의 학풍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하였다. 넷째 실천론에서 치양지, 지행합일을 통해 주체적 자아 확립과 그 실천을 강조하고 친민(親民) 철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왕수인의 학문은 시종일관 성인(聖

人)이 되는데 목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심학(心學)은 곧 인간학이라 말할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양지(良知)론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 의식을 동시에 자각시킴으로써 생동감 있고, 활력에 넘치는 도덕 사회를 구현하는 바로서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주희가 존재(存在)와 심성(心性)을 이기(理氣)로 이원화하는 데 반해, 왕수인은 이는 기의 조리(條理)요, 기는 이의 운용(運用)이라며 이즉기(理卽氣)로 일원화한다. 또, 주희처럼 마음의 이와 사물의 이를 서로 응(應)하는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이 곧 이(理)라며 상즉(相卽)하는 관계로 파악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理)라는 논리에서 이의 외재성을 완전히 부정, 마음을 떠나 이가 없고(心外無理), 마음 밖에 사가 없다(心外無事)는 이론을 세웠다. 주희에게 있어서는 이는 태극이고, 이 태극이 만물의 개체에 각각 내재함으로써 그것들의 본성을 이룬다. 이에 반해, 왕수인에게 있어서는 이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물은 마음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유심론에 귀착하였다. 이런 결과로 지식이 선행하고 실천이 뒤따른다는 이른바 선지후행적(先知後行的)인 주희식의 주지주의를 배격하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지행합일설은 심즉리설 이후 2년 만에(1510) 제창되는 학설로서 이 역시 마음이 곧 이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되는 이론이다.

그는 《전습록 傳習錄》에서 주희의 즉물궁리(卽物窮理)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였다. “주희의 이른바 격물이란 것은 즉물하여 그 이를 궁구하는 데에 있으며, 즉물궁리는 곧 사사물물(事事物物) 위에 나아가 이른바 정리(定理)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써 사사물물에 나아가 그 이를 구하는 것인데 마음과 이(理)를 쪼개어 둘로 한 것이다.” 양지는 자가준칙(自家準則)이기 때문에 의념이 머문 곳(이것이 이른 바 物이다)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알면, 조금도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지에 의지해 가기만 하면 선은 보존되고 악은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 왕수인의 격물 대의다. 격물(格物)은 궁리가 아니라 마음의 부정(不正)을 바르게 잡고, 위선거악(爲善去惡)하는 데 본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왕수인의 견해는 마음과 리가 둘이 아니라는 사상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신(身)·심(心)·의(義)·지(知)·물(物)이 격(格)·치(致)·성(誠)·수(修)로 단계적 순서로 닦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성의, 정심으로 통일을 이루는 간이한 이

론이 세워진다. 격물에서의 물(物)은 심(心)의 물인 까닭에 정심(正心)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격물은 정사(正事)·정물(正物)이고, 위선 거악일 뿐이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구별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지>

중국 철학 사상사에서 볼 때 양지를 처음 제출한 사람은 맹자(孟子)였다. 지(知)를 주희는 대략 식(識)으로 인식한 데 반해, 왕수인은 맹자가 말한 양지(良知)로 보고, 이것을 지식이 아닌 형이상적 심(心)의 본체로 삼았다. 맹자에서 양지(良知)는 양능(良能)으로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인간의 선천적 인식 능력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만인이 다 같이 갖는 하나의 심(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맹자의 양지는 왕수인에 이르러 단순한 것이 아닌 매우 복잡한 구성 원리를 가지면서 다의성을 갖고 마음의 본체로서 정립된다.

양지(良知)는 인간의 단순한 지식이나 인식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원리와 실천의 원리 전체를 함유하는, 실로 폭넓은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왕양명의 양지는 첫째로 진성측달(眞誠惻달이란 고통과 슬픔에 빠진 대상에 대해서 거짓이나 꾸밈없이 불쌍해 하고 슬프하는 마음의 진실한 작용이다 [仁]), 시비지심이란 면에서 공자의 인과 맹자의 사단(四端)을 포섭하고 있고, 둘째로 성(性), 도심(道心), 미발지중, 천리란 면에서 보면, 《중용》과 《대학》 등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뜻하며, 셋째로 태허무형, 유행의 기란 점에서는 장재(張載)의 일기(一氣)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넷째로 적연부동, 역이란 면에서는 주역에서 말하는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으로서의 태극, 즉 생생의 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천지만물을 양지의 생출(生出)로 보는, 이른바 그의 조화의 정령을 세우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로 허령명각(虛靈明覺, 우리 마음이 밝게 깨어 있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널리 인지하고 그것에 감응하는 작용), 소명영각처(昭明靈覺處), 명경, 조심, 항조자(恒照者), 본래면목(本來面目), 등은 중국 화엄 사상 및 선종 사상의 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로 선가(仙家)의 허와 불가의 무를 양지의 허, 양지의 무로 교묘

히 결합하고, 특히 선가의 신(神), 기(氣), 정(精)을 양지의 묘용(神), 유행(氣), 응취(精)로 보아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것은 왕수인이 선가의 사상까지도 양지에 흡수시키고 있다 하겠다. 실로 유·불·도 삼교의 핵심 개념들이 양지(良知)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왕수인은 <상산문집서 象山文集序>에서 육구연과 그 자신이 맹자의 심학(良知學)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양지 학설에서 풍기는 에토스는 삼교 융합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이 그의 심학(心學)의 한 독자성이라면 독자성일 것이다. 왕수인에게 양지는 선악 시비의 판단 능력이고 천리(天理) 자체로서 인간의 심(心)의 본래의 모습이다. 또한 이 양지는 흐르는 기(氣)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 시처(時處)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확대되면 우주의 생명력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중국 유학 사상 마음을 이처럼 우주적 본체로 개념을 고양시켜 존재 원리로 정초(定礎)시킨 것은 왕수인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심즉리(心卽理)의 구조에서 보면 이(理)란 외부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이(理)는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뒤 태주학파(泰州學派)인 양명좌파는, 양지란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양지현성설(良知現成說)을 발전시켰다. 양지의 현성을 믿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사욕은 소멸될 것이며, 희로애락(喜怒哀樂) 등의 감정은 본래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양지의 작용이라면서, 양지는 선(善)이라 하면서 칠정(七情)을 악(惡)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단지 칠정에 고착해 집착한다면 그것은 욕(欲)이 되어 양지는 은폐되고 만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 제자가 “부모가 돌아가신 날에 호곡(號哭)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인 낙(樂)을 손상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왕수인은 “그 때 크게 곡한 뒤에 낙의 경지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한 번 호곡하지 않는다면 본래인 즐거움의 경지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였다.

<만가성인(萬街聖人)>

정호(程顥)가 만물일체의 인(仁)을 주장하고, 왕수인 역시 그것을 계승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주체성 존중과 만민평등의 대중적인 학문이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존중 사상 또는 민중 존중 사상은 유교 정신의 혁신적인 계승이라 할 수 있다.

밖에서 돌아온 왕간(王艮)에게 왕수인이 “거리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묻자 왕간은 “온 거리의 사람은 모두가 성인(聖人)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왕수인은 다시 “상대방도 자네를 성인이라 보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양명학 좌파들에게 실천적으로 계승되어 목수·나무꾼 등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양지학의 대중화는 중세의 신분 주의에 대한 타격이 되었다. 태주학파의 하심은(何心隱, 원명은 梁汝元)과 그를 숭배한 이지(李贄)의 사상은 우리나라 양명학파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심은은 취화당(聚和堂)을 만들어 종족연합체(宗族聯合體)를 구성하고 공동 생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리를 신(信)으로 하였다. 벗 사이의 신(信)은 군신 사이의 의리와 표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지는 《분서 焚書》<하심은론 何心隱論>에서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양여원은 그 중 네 가지를 버리고, 다만 몸을 사우성현(師友聖賢) 사이에만 두었다.”라고 하면서 의(義)·친(親)·별(別)·서(序) 등은 상하 관계의 종적인 윤리이므로 버리고, 스승과 벗 사이의 신(信)은 횡적인 윤리이므로 취한 것이라 하였다. 또 이지의 <동심설 童心說>도 우리나라 양명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동심설> 첫머리에서 “동심이란 거짓을 버리는 순진한 것이고, 최초 한 생각의 본심(本心)이다.”라고 해 절가순진(絶假純眞)을 주장하였다. 동심은 본심을 말하지만 또 양지를 의미하므로 “그 사람이 이미 거짓이면 거짓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해 가인(假人)·가언(假言)·가문(假文)·가도학(假道學)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또한, 그가 《분서》에서 “정신 능력 [見] 에 남녀의 구별이 있다고 하겠는가? 남자의 정신 능력은 모두가 훌륭하고 여자의 능력은 모두가 졸렬하다고 어찌 말하겠는가?”라고 한 것은 남녀평등의 사상을 전개한 것이다.

3. 왜 정제두인가

먼저 홍원식(계명대 교수)이 번역한 ‘정인보’의 ‘양명학연론 해제’에 쓰인 정인보 선생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해제에서 우리는 한국양명학을 거론할 때면 우선 정제두 선생을 거론하고 연구하는 이유인 ‘왜 정제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양명학의 시발점이 된 ‘학변’과 ‘존언’이라는 책을 쓰신 정제두 선생은 위인전으로도 소개되지 않았고,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반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정제두 선생의 업적과 사상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선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많은 양명학자들이 왜 정제두를 한국 양명학의 태두(泰斗)라고 보았는지,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아래에 이야기한다.

<정인보 선생의 ‘양명학 연론’에서 본 철학자 정제두>

구한말에 걸쳐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어진 시기의 마지막 국학연구자이신 정인보(1893~1950)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조선 문학과 한학을 강의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민사관에 맞서 국악 연구에 온 힘을 쏟아 국학 연구의 길을 걸은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초대 감찰위원장을 역임하신 유학자다. 선생은 1934년에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를 출간하시고, 1935년1월1일부터 1936년 8월28일까지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정제두 선생을 한국양명학의 종사(宗師)라고 칭하였다.

‘6장 조선의 양명학과’에서 정제두는 조선 양명학과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조선 양명학과의 대종사이다(정인보의 ‘양명학연론’ 215쪽)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는 양명 이후 양명학과의 저서로서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정밀하고, 가장 양명의 본뜻에 가까우며, 가장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양명학연론, 216쪽)고 하였다. 양명의 제자인 왕간, 전덕홍, 나홍선의 주장을 모두 섭렵한 정제두는 조선 양명학과만의 대종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의 양명학은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여기며 따라주었지만, 조선에서는 사문난적으로 취급하여, 지음(知音) 한 명 만나지 못하고 갖은 비판 속에서 홀로 학문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위의 책, 216쪽) 또한 정제두가 추곡에서 지은 존언(存言) 3권은 양명의 전습록과 같은 훌륭한 책이지만 일생 동안 홀로 이룬 학문을 외부로 내보내지 못한 불운한 학자라고 안타까워하였다.

윤남한이 번역한 ‘하곡집’ 해제에서 하곡의 글들은 주자학의 관학적 통제로 인하여 그 저술들이 필사본으로 필사본으로만 전하여 사장되어오다가, 1856년경에 정제두의 현손(玄孫)인 정문승이 22책 필사본을 전하다가, 1973년 처음으로 국역하면서 인쇄하였다고 한다. 정제두 선생의 글은 그 전까지 한번도 간행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전한 까닭에, 하곡집 국역본은 중복된 내용, 연결되지 않은 사상, 정주학적으로 호도된 모호선 및 탈자, 오자 등의 구절이 많은 상황에서 국역하였다고 한다.

정제두 선생은 말끝마다 허와 실의 구분을 강조하고, 양지의 학을 통해 실질적 공부를 환기시켰다고 하였으며, 그의 저서 답록(荅錄)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에 이익이 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자”고 말했다. “매사를 ‘이 땅 이 때에’ 비추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연구함으로써, 실행했을 때 실익이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양명학을 통하여 진정한 애민(愛民) 정신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김교빈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인, 하곡 정제두’에서의 철학자 정제두>

2002년에 간행한 ‘한국의 사상가 10인, 하곡 정제두’에서 김교빈(호서대학교 교수)은 한국 양명학연구는 초기에는 양명학의 유입과정과 퇴계의 양명학 배척이 주된 연구과제였으나 다음으로 정제두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개화를 하였다고 보면서, 한국 양명학 연구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 먼저 개괄 연구 시기는 1933년 동아일보에 양명학연론을 연재한 정인보 선생으로부터 1967년 이을호의 ‘다산 경학의 육왕학적 단면’ 1972년 민영규의 ‘위당 정인보 선생의 행장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발표한 시기로 보았으며, 본격 연구는 1970년대 이후로 보고, 80년대까지는 준비기로, 2000년까지는 개화기

로 보고, 이후 한국양명학계의 과제를 책으로 내었다.

정제두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양명학의 개화 준비기의 학계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1972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곡집을 국역한 윤남한은 1974년에 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곡학의 기본 방향과 단계성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정제두 철학의 지향점을 찾으면서 정제두 철학 연구의 길을 놓았다. 한편 1976년에 유철호는 정하곡의 철학사상 연구로 석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하곡 정제두의 인심도심설과 사단칠정설을 발표하였다. 이 무렵 유명중은 ‘조선조 양명학 연구와 그 전개’ 논문에서 한국양명학의 계보를 정리하고 정제두의 철학사상을 소개한 다음 학문적 계승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78년에는 중국학자로는 처음으로 채무송(蔡茂松)의 ‘한유(韓儒) 정하곡(鄭霞谷) 연구’가 나온다. 1980년대 석사학위논문으로 김종석의 ‘하곡 정제두의 사상 연구-기호학과의 주기론과 관련하여’와 김재구의 ‘하곡 정제두의 양지론 연구’가 있다. 1981년 마쓰다(松田弘)의 ‘조선조 양명학의 특질과 그 논리구조-정하곡 사상과 양명학과의 비교에 의한 검증’이 주목할 만한 논문이었으며, 이해영의 ‘하곡 정제두 철학의 양명학적 전개’는 생리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심도 깊은 연구였다. 또한 정제두를 한국양명학의 중심축으로 다룬 단행본이 나왔는데 윤남한이 ‘조선 시대의 양명학 연구’를 펴내고, 유명중은 ‘한국의 양명학’을, 김길환은 ‘한국 양명학 연구를 펴냈다. 김길환은 실학이 그 이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양명학으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인다. 그리고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1988년에 전해온 22책 본을 대본으로 삼아, 다른 저본에서 발췌한 글을 포함하여 여강출판사에서 하곡전집 영인본이 발간하므로써, 정제두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교빈은 1990년대를 정제두 연구를 포함한 한국양명학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개화를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먼저 정제두의 철학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박사 학위가 탄생한다. 박연수의 ‘하곡 정제두의 사상에 있어서 인간이해에 관한 연구’였다. 1992년에는 김교빈의 박사학위 논문 ‘하곡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존재론, 인성론, 사회의식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중심으로’가 나왔다. 그리고 전택원의 ‘하곡 정제두의 심체에 관한 연구’와 부제공의 ‘하곡철학연구’가 나왔다. 박연수, 김교빈, 부제공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전택

원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정제두의 철학 사상 연구의 범위가 심성론에서 경학사상으로 넓어졌다. 김낙진의 ‘하곡 중용(中庸)설에 대한 이해’와 이해영의 ‘하곡 정제두의 중용(中庸)이해, 김교빈의 ‘대학설을 통해 본 하곡 정제두의 경학사상’ 유철호의 ‘하곡 정제두의 대학설에 관한 고찰’, 이종태의 ‘하곡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구-맹자설을 중심으로’, 금장태는 ‘하곡 정제두의 심학과 경학’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가 다양해졌다. 박홍식의 ‘양명의 양지설과 하곡의 생리설 비교연구’, 유철호의 ‘주해문의 심체무선무악론-정하곡의 심체무선무악론에 관한 연원적 고찰’ 등의 논문에서 본래의 양명학과 이후 후학인 정제두의 양명학을 비교 고찰하는 심도깊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송석준의 ‘한국양명학과 실학 및 천주교와의 사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성호학파의 양명학과 실학’이 나왔다. 정제두 철학을 중심으로 한 양명학이 조선 정치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를 다룬 정차근의 ‘동양정치사상-한국 양명사상의 전개’가 나온다.

이후 정제두 선생이 61세부터 기거한 강화에서 가학(家學)의 형태로, 지인들에게 전하여 통칭 강화학파를 이루는 일군의 지식인에 관한 연구로 옮겨간다. 정제두 선생의 호를 선생이 거주하던 강화도에서의 지명을 딴 하곡으로만 지칭하는 현상이라든지, 정제두 선생이 안산(현재의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마을, 일명 楸谷)에서 저술한 ‘학변’과 ‘존언’이 양명학 정신을 본격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후 강화로 이거한 후에는 경학 중심으로 학문의 태도가 바뀐 의미를 살피는 연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한국 양명학의 수용 경과- 정인지의 ‘양명학의 정신’에서 발췌>

양명학은 150여 년 동안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으며, 양명학의 주창자인 왕수인(1472~1529)은 2,000여 년에 걸친 중국 철학사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왕수인의 어록과 서간을 모은 『전습록』은 제자 설간(薛侃)이 스승의 어록을 편집했고, 남대길(南大吉)이 서간을 더했는데, 왕수인이 세상을 떠난 뒤 전덕홍(錢德洪)이 두 번에 걸쳐 증보해 완성하였다. ‘전습(傳習)’이란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 ‘전

불습호(傳不習乎)'(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에서 비롯된 말이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거듭 복습해 익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양명학이 한국에 전한 것은 중종 21년(1526)년 경이라고 한다. 초기에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학자는 남언경(1527~1594), 이요, 허균(1569~1618), 이수광(1563~1628), 이세필(이항복의 아들), 최명길(1586~1647), 장유(1587~1638) 등으로, 모두 정제두의 선학(先學)이다. 정제두(1649~1736)는 중국의 양명학과 양명후학까지 공부하고, 퇴계, 율곡으로 이어진 조선의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적 양명학을 정립시켰다. (정인제, 양명학의 정신 403쪽)

조선에서 양명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학자로 판단되는 남언경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학자로서, 서화담의 주기, 주정설에서 노자, 불교, 제자백가의 사상적 편력을 거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기르는데 주력하며, 마음이 곧 천리이며 성인이나 범인이나 일체라는 양명학의 핵심을 받아들였다. “선조 5, 6년 경에는 그의 문하에 학도가 모여들만큼 심학계에서 기치를 들었다.”고 윤남한은 그의 저서 ‘조선시대 양명학 연구’에서 말하였다. 또한 충실인 경안령 이요는 남언경에게서 양명학을 배워 선조 임금에게 말하였으며, 선조 또한 육왕학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선조 26년, “왕은 옛날 육상산은 자제들에게 무술을 익히도록 하였고, 왕양명은 말 타면서 활쏘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다.”고 유명중은 ‘한국의 양명학’에서 말하였으며, ‘허균의 사상은 철저한 인도주의와 주자적 허위성 공격, 인육의 긍정 새로운 문예정신 고취 면에서 왕양명과 그의 후학 태주학과와 태주학과와 영향을 받은 신문예운동가 상통한다’고 보았다. 한편 병자호란 때 주화파였던 최명길과 장유 역시 양명학을 받아들인 선비였다. 정인보는 최명길의 언행으로 보아 분명한 양명학파이며, 장유는 그의 저서 계곡만필에서 “중국에는 학문의 갈래가 많아 정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학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단학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정주학을 배우는 사람, 육구연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 문과 길경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식이 있건 없건 막론하고 책을 끼고 앉아서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주학을 외고 앉아 다른 학문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한다고 하여, 양명학을 옹호하였다.

4. 양명학과 한국양명학

정인보는 정제두를 한국 양명학의 대종사(大宗師)라고 하였다. 중국의 왕수인이 시작한 양명학을 조선의 선비 정제두 선생이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대한민국 사상사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이다.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 정신은 실학자인 유수원과 홍대용에게 계승하였고, 조선 말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계명의숙’을 설립한 이견방 선생의 교육사업과,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견승, 민족사관을 주장하며 독립운동에 나선 박은식, 서양학문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양명학적 사고로 융합하여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정인보 선생을 배출하였다. 그러한 발전의 뿌리가 곧 정제두 선생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먼저 한국 양명학의 태두인 정제두의 양명학 정신을 살펴본다.

<정제두의 양명학 - 정인제 저, ‘양명학의 정신’에서 발췌>

먼저 정제두의 제자 박필일이 정제두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되는 해에 서원을 허락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글에, “참됨(誠)이란 마음 가운데 실리(實理)를 이룹니다. 하늘이 실리(實理)를 사람에게 주면 그것으로 마음(實心)을 삼으며, 실심(實心)으로 앎을 이루면(致知), 참된 앎(眞知)이 되고, 이를 힘써 행하면 실행(實行)이 됩니다. 이것이 실학(實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은 정제두가 영조에게 한 말과 같다. 정제두는 영조에게 정치의 근본은 실심(實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심(實心)이 곧 정제두 철학의 출발점이고, 실학은 곧 실심으로 실천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참됨(誠)=실심(實心)=양지(良知)=실리(實理)라는 등식이다.(정인제, 양명학의 정신, 415~416쪽)

정제두는 당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조선 주자학을 섭렵하고 추곡에서

양명학을 천착한 이후, 하곡으로 이주하여서는 새로운 사조인 양명학을 받아들여 독자적 학문체계(하곡학)를 이루었다. 하곡은 양명학자의 본질을 간직한 채 예학(禮學)을 전개하여, 예법의 형식윤리학과 덕 중심의 내면적 도덕철학을 결합하는 등으로, 주자학과 양명학을 회통시켰으며, 도덕 주체의 본원(本源)을 찾아낸 실심실학의 유종(儒宗)이다. 또한 양지(良知) 본체가 모든 생명체에 신령스럽게 감통(感通)할 수 있는 독특한 생리(生理)설을 창안하였다.

정제두에게서 시작한 한국 양명학은 하곡학과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초기의 하곡학과는 심육, 이견병, 윤순, 유수원, 심운 등이 안성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강화로 간 뒤에는 이광신, 이광사, 아들 정후일, 사위 이광명, 이광려, 손서 신대우가 하곡학파의 초기 문인으로 파악된다. 이후 강화도의 하곡학파에 의하여 현대의 정인보에게까지 이어진다.

<정제두의 생리(生理)-이상호 저, ‘양명우파와 정제두의 양명학’에서 발췌>

정제두는 양명학을 처음 접하고 기뻐하였으나, 어느 순간, 걱정하게 되었다. “내가 양명집을 보니, 그 도가 매우 간략하고 정확하며, 정밀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기뻐하고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신해년 6월, 동호에 가서 목을 때, 꿈속에서 홀연히 생각이 들기를, 양명의 치양지설이 매우 정밀하지만, 정에 맡겨 두어 욕망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임정종욕(任情縱慾))는 걱정이 생겼다”고 하였다.

양명학은 심이 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리 개념이나 리(理)의 차별성을 말하지는 않는데, 정제두는 심즉리(心卽理)는 인정하되, 그것이 정감이나 욕망으로 흐르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리(理)의 층차를 설정하였다. 정제두는 “범리(凡理) 가운데서 생리(生理)를 주(主)로 하고, 생리 가운데서 진리(眞理)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서 리(理)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제두의 存言 上, 故於凡理之中主生理, 生理之中擇其眞理, 是及可以爲理矣)

정제두는 한 몸의 생리(生理)를 정신(精神)과 생기(生氣)라고 하였다. 또한 “신묘한 생명력이 리(理)이며, 실(實)이다(존언 상, 以神生爲理(性志之主, 神聖之靈 生生不息者-성과 뜻의 주됨과 신성의 영묘함이 생생불식하는 것이다.) 爲實(於枯木死灰則 絶焉 於盜賊暴淫則 息焉-마른 나무나 죽은 재에서는 끊어지고, 도적 및 포악함과 음란함에서는 없어진다)”고 하였다. 마음(心)은 이 목구비(耳目口鼻)의 주인으로서, 지각을 주관하는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인식(판단 능력)과 정감(情感)의 발현이 바로 마음의 두 영역이며, 정제두는 이것을 생리(生理)로 보고 있다. 성리학에서의 리(理)는 정감이나 욕망은 포함하지 않는데, 정제두는 리(理)에 정감을 포함시켰다. 이 말은 도덕 인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리(理)가 도덕정감으로 표출될 때는 생리(生理)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상호는 해석하였다.

한 덩어리 생기(生氣)의 으뜸과 한 점 영묘한 생리(生理)란 것이, 마음에다 집을 짓고 그 중극(中極)에 둥글게 뭉쳐 있다. 그것이 신장에 뿌리를 박고 얼굴에서 꽃을 피운다. 그것이 확충되면 몸에 충만해지고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된다. 그 영묘(靈妙)하게 통합은 헤아릴 수 없고 그 묘용(妙用)은 끝이 없으니, 수 만 가지 리(理)를 주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천지와 사방(六虛)에까지 두루 유행하게 되고, 변하고 동해서 없는 곳이 없게 된다고 한다. 그 체에는 진실로 순수하고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있으니, 그 법칙을 각각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내 몸을 태어나게 한 생명의 근원이니 이른바 성(性)이다. 다만 그 생리만을 가지고 말하면 생(生)함을 일컬어서 성(性)이라고 하니, 천지의 대덕(大德)을 생(生)이라고 말한다. (출처-존언 상)

정제두는 그의 저서 ‘존언(存言)’ 상(上)에서 “리(理)의 체(體)는 심(心)의 용(用)에서 나온 것이니, 심(心)의 용(用)은 곧 리(理)의 체(體)이다. 심(心)에 용(用)이 없다면 리(理)에 체(體)도 없으며, 리(理)에 체(體)가 없다면 심(心)에 용(用)도 없다. 그러므로 리(理)가 곧 심(心)이요, 심(心)이 곧 리(理)이다. 리(理)의 체(體)는 반드시 물(物)로 인해서 있고, 심(心)의 용(用)도 반드시 물(物)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소리와 색, 냄새, 맛 등과 같은 물(物)이 없다면 리(理)의 체(體)도 없어지고 심(心)의 용(用)도 폐해진다.”고 하였다.

이상호는 양명학의 심즉리(心卽理)는 정제두에게서 심즉생리(心卽生理)가 되었으며, 생리지심(生理之心)은 곧 심(心)의 용(用)이며, 이는 이(理)의 체(體)라고 하면서 심즉리(心卽理)를 설명하였다.

정제두는 외물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감(情感) 역시 리(理)로 인정하며, 사람의 일상적 욕구까지 리(理)로 인정한다. 또한 정제두는 본체(알맹이)로서의 심(心)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포막으로서의 심(心)을 나누었다. 포막(鋪幕)으로서의 심(心)은 표현된 마음이다. 그러므로 정제두의 생리지심(生理之心)은 인식하는 마음 또는 인식을 통해서 반응하는 드러난 마음, 혹은 표현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리지심(生理之心)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감정과 욕망이며 선함이 내재되어 있는, 도덕으로 표현된 정감도 생리지심(生理之心)의 범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학자는 정제두의 생리지심을 성리학의 기질지성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생리의 체, 즉 리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 형기(포막)가 각기 다르므로, 다른 현상을 보인다. (이상호, 양명우과와 정제두의 양명학, 168~169쪽)

5. 치양지와 발본색원론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주장이나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하다는 주장은,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보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하게 된다. 때로는 선한 듯 느껴지고, 때로는 악한 듯이 느껴지는 경험한 때문이다. 그렇게 주저하는 생각을 발전적으로 철학화한 것이 양지(良知) 사상이며, 치양지(致良知)가 아닌가 한다. 양지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며, 본래부터 선하고 맑은 상태인데, 사리사욕(私利私慾)으로 가리어 있어서 그 사욕을 걷어내야만, 인간의 선함이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양명학에서의 양지(良知)는 천리(天理), 즉 하늘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통상 말하는 양심의 범위보다 훨씬 크고 깊다. 사욕(私慾)을 걷어내면 하늘의 이치를 수행하는 성인(聖人)이 된다는 사상이어서, 통상의 심성이 선(善)한가

악한가를 논하는 차원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으로 절묘하게 절충해 놓은 철학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늬가 영롱하며 맑은 구슬이 있는데, 진흙이 묻어서 구슬의 맑음이 보이지 않으면 흙을 잘 닦아 내야한다는 이야기다. 양지가 곧 맑은 구슬이고, 치양지(致良知)로 곧 흙을 닦아낸다는 이야기이다. 퇴적층 저 아래에 양지가 존재하고, 그 위로 사리사욕이라는 퇴적물이 쌓인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 곧 치양지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양지(良知)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천리(天理)를 포함하는 존재여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본체(本體)라는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전에서 속닥거리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에 대항하여 맞서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마음속에 있음을 느낀다. 그 존재는 경험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도 악마의 속삭임에 망설이게 한다. 그러한 존재가 사람의 내면에 있음을 느끼면서, 평상시의 물욕에 의한 정감에 의해서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철 지난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들여다보는 것은 바다 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이며, 본래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들추어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또 다른 생각을 해 보자. 돌아온 탕아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 성경의 말씀에는 부모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컫는데, 부모와 고향이 아니라도 우리에게겐 자꾸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 강력한 본능이 무엇으로의 회귀인지는 모르나,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행을 가면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신기해한다.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하나하나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여행에서 돌아와서 일상에 복귀할 때에 맑고 가벼운 심신은 새로운 지식을 얻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그것은 여행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만나다서 오는 기쁨인 것이다.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의 덕성인 양지(良知)를 만나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양지에 천리가 깃들여 있어,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기를 회귀하듯이 양지를 드러내는 일을 생각해 본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타고 나기를 영민하다든가, 원체 착하게 타고 났다든가, 저 사람은 아이 때부터 잔인해서 동물 죽이기를 즐겼다든가 하면서 사람의 품성이 천성적으로 서로 다르게 타고 났음을 이

야기하곤 한다. 왜 사람마다 사리사욕의 크기가 다르고 양지를 드러내는 상태가 다를까. 양명학에서는 발본색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한다. 사람마다 현현하는 품성이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자. 아래에 정인제 교수의 ‘양명학의 정신’에서 양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지에 이르는 방법인 치양지, 그리고 치양지의 방법 중 발본색원을 소개한다.

<양지란 무엇인가-정인제의 ‘양명학의 정신’에서>

양명학은 양지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학문이다. 양지(良知)는 사전적 정의로는 ‘경험이나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닌 타고난 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신유학이지만 주자학과 양명학이 정의하는 양지가 다르다. 양명학에서는 양지를 선천적인 도덕(仁)의 원리, 즉 천리(天理)로 간주하는데 비하여, 주자학은 양지(良知)를 좋은 지각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심(사전적 정의-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 정도로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양지와 지식이 다른 점은 지식(知識)은 외물을 대상화하여 아는 것이지만 양지(良知)는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왕양명이 말하는 양지는 맹자에서 유래하였다. **맹자**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양능(良能)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하였다. 이러한 양지의 개념 형성은 공자의 인(仁)에서 맹자에 이르러 사단(惻隱之心, 是非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명도에 의하여 다시 인(仁)으로 종합되었고, 왕양명이 仁, 義, 禮, 智를 포함한 지(知)라 하였는데, 이는 선천적인 양능(良能)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바로 선천적 도덕적 자각인 양지(良知)를 말한다. 왕양명은 공자의 인, 맹자의 양지양능에다 시비지심을 첨가하여 양지의 선천적 판단능력인 도덕법칙을 확보하였으며, 호오(好惡)를 판단하는 심미적 주체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대체로 마음의 본체는 바로 천리(天理)이다. 천리의 환하게 밝고 영묘하게 깨닫는 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다. 양지는 천리(天理)의 환하게 밝고 영묘

하게 깨닫는 곳이다. 그러므로 양지가 바로 천리이다. (전습록 중 答歐陽崇
-良知是天理之昭明靈覺處 故良知即是天理)

-양지는 거룩한 자기 준칙이다. 양지는 마음 속 성인(聖人)이다.

-양지는 참된 자기이다(眞己). 양지는 하늘이 심어준 영명한 뿌리(天植靈根)

-양지는 자기만이 홀로 아는 독지(獨知)이다.

입성(立誠), 성신(誠身), 계구(戒懼) 공부는 반드시 양지 독지(獨知)에 의거
해야 한다.

-양지는 미발의 알맞음(未發之中)이다.

왕양명은 미발(未發), 이발(已發)을 구분하지 않고 본체와 작용이 하나인
체용일원(體用一源)의 입장이다.

-양지는 지선(至善-가장 좋은 것, 훌륭한 것)이다.

-양지는 남의 고통을 아파할 줄 아는(진성측항-眞誠惻恒) 마음이다.

-양지는 영묘한 밝음(靈明)이다.

밝은 거울에 비유하기도 한다.

양지는 영명한 빛으로 옳고 그름(是非), 거짓(正邪)을 있는 그대로 안다.

-양지는 즐거움의 본체이다-심미적 판단의 근원

왕양명은 양지 본체가 심미적(희로애구애오욕 喜怒哀懼愛惡欲) 특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양지(良知)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선(善)이 보존되고 악
이 제거되는 경지에 이르러 즐거운 감정, 즉 감성적 쾌락을 가져온다고 하
였다. 보통 사람 역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 즐긴
다 함은 양지(良知)의 심미적 본체인 낙(樂)을 사회에 실현하는 것일 뿐 아
니라,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어진 사람은 천지만물과 화합하여
간격이 없다. 7정을 통하여 발현하는 예술은 반드시 중화(中和)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곧 양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 역시 양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양지의 전개로 본다. 그러므로 양지를 실현하면 스스로 화평을 선양하고 덕
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양지는 조화(造化)의 정령(精靈)이다.

양지를 영성의 근거로 보았으며 천지, 귀신, 상제를 생성하는 조화의 정령
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이란 천지만물의 마음이다. 마음이란 천지만물의
주인이며, 마음이 바로 하늘이다.

-양지(良知)는 성인과 보통 사람이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

<치양지-정인재 저, '양명학의 정신'에서>

치양지(致良知)란 양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바, 치양지의 공부 내용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사욕(私慾)에 빠지지 않고 양지를 실현하는 사상마련(事上磨鍊-일하면서 연마하는 일)과 사적인 욕심을 근원적으로 막아 그 근원을 뽑아버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통하여 대동사회(大同社會)에 이르는 것이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인의(仁義)라는 도덕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는 오상(五常)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왕양명은 맹자의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사리사욕(私利私慾)이 문제인데, 사리사욕은 물욕(物慾)에서 생기며, 이목구비(耳目口鼻)의 감각적 요구가 외물에 이끌려 본심(本心)을 잃어버린 데서 나온다. 양명은 한가로이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조차도 그 뿌리에는 사욕(私慾)이 내재해 있으며, 사리사욕이 양지(良知)를 가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사리사욕에 가린 양지를 되찾는 길이 치양지(致良知)이다.

양지(良知)가 선천적인 마음의 본체라면 치양지의 치(致)는 후천적 공부에 해당한다. 치(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끝까지 이룬다는 지극(至極)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양지를 실천한다는 실행(實行)을 뜻한다. 왕양명은 “양지(良知) 밖에 다시 앎이란 없으며 치지(致知) 밖에 다시 학문이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의 양지를 실행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다.“를 평생의 강학(講學)으로 삼았다.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격물 공부(爲善去惡是格物)가 참되기 위하여서는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양지(知善知惡是良知)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양지(陽地)의 실천은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큰 공동체인 사회나 국가에 우선하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양지(良知)를 발휘하게 하여 사회의 낙오자 없이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이상적인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치양지(致良知)의 궁극적 목표이다.

<발본색원론-정인제 저, 양명학의 정신247쪽~261쪽>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말은 ‘좌전 소공 9년조’에 나오는데 나무뿌리를 뽑고 물의 근원을 막는다는 것으로, 재해의 근원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뜻하였다. 양명학에서의 발본색원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근원을 막고 도덕원리를 간직하는 것(在天理)을 말한다. 왕양명은 **발본색원론**을 통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뿌리에서부터 뽑아 없애는 길을 제시하였다. 바로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 공부를 통하여 천지만물이 한 몸임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욕심이 싹틀 때 마치 고양이와 쥐를 잡듯이 온 눈으로 살피고 온 귀로 듣고 있다가 한 생각이 싹터 움직이자마자 곧바로 제거해 버린다. 바로 성찰극치(省察克治)의 치양지 방법이다. 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맑게 하고 평안하게 가라앉히는 묵좌징심(默坐澄心)의 방법도 있다. 그 가르침은 고대부터 성인이 성인에게 전해준 것인데 주로 오륜(五倫)이 중심 내용이다. 오상(五常)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개하여 성찰극치로서 발본색원을 이룬다.

6. 양명학의 정신

인류의 역사는 중앙집권적 중세 봉건사회에서 오늘날의 민주사회로 발전하였다.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지배의 기본 원칙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오늘날 (곳곳에서 아직도 총성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여 여러 부문의 네트워크화로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1762년에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가 일반의지(진리와 선을 전제하는 의지)를 주축으로 한 ‘사회계약론’을 저술하고, 인간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주장하는 프랑스혁명(1789년)이 일어난 지 230년이 지났으니, 자유와 평등, 인권은 인류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아주 뒤늦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전에는 사람은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신분제와 성차별의 폐습이 극심한 사회였

다. 그 이면에는 조선의 중심학문인 성리학이 있었으며, 중국보다 신분차별이 더 심한 서열(庶孽)차별까지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중국의 명대에 주자학을 비판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사민(四民-士農工商) 평등의 양명학이 중국의 왕양명(1472~1528)과 그의 후학에 의해서 조선에 전래하여, 정제두 선생이 치열하게 양지(良知)를 탐구하고, 양명정신을 바탕으로 경학(經學)과 어우러지는 한국양명학의 기치를 세우고는 가학(家學)으로 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당시 조선조 지배층의 학문인 주자학(朱子學)은 신분제 질서의 동요를 막고자, 양명학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탄압하여 서양보다 일찍 싹튼 자유, 평등의 싹을 짓밟았다. 그러다가 선비만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나서는 주자학적 통치는 막을 내리고, 서양 제국주의에 문물을 개방하고, 갑오개혁을 하였다. 이어진 국권침탈의 시기인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정 통치를 지나고 서양의 학문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우리에게 서양의 자유 평등 인권 개념에 버금가는 한국 양명학 사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양지(良知) 사상을 통하여 평등하게 행복한 개개인의 연합체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꿈꾸는 양명학사상이 조선 14대 임금 선조 이래로 오늘까지 이어져서, 일제 강점기 시절엔 식민사관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은식 선생으로, 건국 후에는 서양문명과의 조화를 이루는 양명학적 사회를 주창하는 정인보 선생으로 그 학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미래의 지구촌을 이끌어줄만한 전통 사상(양명학)이 존재하는 것을 거개의 국민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양명학과 정제두, 그리고 그의 철학인 실심철학을 교육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청맹과 니처럼 살아간다. 각인이 성인(聖人)을 지향하여, 대동사회(大同社會)로의 번영을 꿈꾸는 양명학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다. 16세기 왕양명과 그 후학들, 그리고 18세기 조선의 정제두 선생에서 20세기의 박은식, 대한민국의 정인보 선생으로까지 이어 내려온 양명학의 정신을 아래에 살펴본다. 21세기에는 양명학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받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백암 박은식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제2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다. 박은식 선생은 조선조 제왕학의 병폐를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왕 중심으로 타락한 유교를 민본유교로 되돌려야하며, 간단하고 쉬운 양명학으로 백성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은식은 양지(良知)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왕양명이 말하는 양지는 맹자가 말하는 성선(性善)과 같다. 사람들이 불효 불충의 악에 빠지는 것은 욕망에 움직여서 그들의 양지를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생겨날 때에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양지가 스스로 알 수 있다. 양지는 나의 신성함의 주인공이며 나의 공정한 감찰관이다.... 학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단지 문견(聞見)이 적을까를 걱정한다. 하지만 양명학적 견지에서는 견문이 많을수록 양지가 가려지는 것이 심하다. 양명학의 지행합일론은 서양철학과도 일맥상통하며 간단하고 쉬운 양명학은 살아있는 학문이고 생활유학이어서 미래세대 청년들의 사업을 하는 마음을 진흥시킬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양명학을 원용하여 근대국가 건립에 성공한 일본과 주자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위정척사를 한 조선왕조 말기와 비교할 때에 박은식 선생의 탁견이 빛을 발한다. 박은식의 대동사상은 서양에서 들어온 진화론을 천지만물이 일체라는 양명학의 사상에 결합시켜 세계 평화주의를 표방하였다. 또한 박은식은 양명학에서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삼교 합일을 도모하였다.

<사회지향적 민학>

주자학은 사서집주(四書集註)가 과거의 필수과목으로 선정되면서 상층의 정치 지향적 관리들을 위한 학문으로 발전하여, 그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서(清白吏)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학문이었지만, 결국 권력 지향적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는데, 왕양명의 치양지 가르침은 백성들이 자각적으로 도(道)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득군(得君)으로부터 각민(覺民)으로, 상층(上層)으로부터 하층(下層)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왕양명의 강학활동에서 유발하였으며, 누구나 양지를 실현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친 덕이었다. 왕양명은 강학 활동을 통하여 문인들을 흡인(吸引)하였고, 또 문인에게 후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서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심학을 천하에 밝히는 것을 일생의 포부로 삼았다. 그러므로 양명학의 사상 발전 과정은 강학운동사이며, 양명심학이 일종의 학파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업동도(異業同道)>

주자학자들은 논어의 정의를 중시하고 이익을 가볍게 보는 ‘중의경리(重義輕利) 사상과 대학의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라는 덕본재말(德本財末)의 입장에서 제왕에 벼슬하는 사(士)가 근본이며, 농(農)이 그 다음이고 공상(工商)은 말단이라고 사민을 수직적으로 보았다. 정도전은 농(農)이 만사의 근본이 되고, 옛 성인이 공상(工商)에 세금 부과를 제정한 것은 말업(末業)을 억제하여 본업으로 돌아가게 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조 500년간 지속되었다.

이에 반해 양명학자들은 각민행도(覺民行道)의 입장에서 사농공상이 모두 평등하고 수평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각기 직업을 달리 하지만 성학(聖學)의 길은 같이한다는 이업동도를 제시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을 주장하였다. “옛날에는 사민(士農工商)이 직업을 달리하였으나 도를 같이하였다. 그들이 마음을 극진히 한 것은 한 가지이고 같았다. 선비는 이 마음(道)을 가지고 수양하고 통치하였으며, 농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곡물을 생산하여 백성들을 길렀으며(具養), 공인(工人)은 이 마음을 기물(器物)을 발전시켰으며, 상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재화를 유통시켰다(通貨). 각기 그 자질이 가까운 곳, 힘이 미치는 곳에서 생업을 삼고 그 마음을 극진히 발휘할 것을 추구하였다. 그 귀결은 요컨대 사람을 살리는 길(道)에 유익함이 같았다는 것이다. 양명의 이러한 사상은 명청(明清) 시기 상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예를 들어 왕문현묘지명(王文顯墓誌銘)에서 ”왕문현은 일찍이 여러 아들을 훈계하여 이르기를 대체로 상인과 선비는 수단을 달리 하지만 마음은 같다. 그러므로 훌륭한 상인은 재화(財貨)의 시장에 처하여도 고명(高明)한 행위를 닦는다. 이 때문에 비록 이익을 남기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명청 시대 상인의 정신은 서양의 천직(天職)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 양명학자 유수원(1694~1755)은 조선이 두 차례 외국침략의 전란을 겪은 것은 국가의 가난 때문이며, 이는 백성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사농공상 사민의 역할분담을 몰라서 사민이 각기 생업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민이 일을 나누어 각기 실사에 전념하여 각기 의식(衣食)을 얻도록 하였다면, 유생(儒生)이 반드시 학문을 일으키는 실리가 있었을 것이고, 국가가 인재를 얻는 효험이 있었을 것이며, 온 나라에 선비를 가칭하면서 공공연히 놀고먹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왕양명의 이업동도는 사농공상이 모두 각각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성현의 도를 실천하여 실제로 성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전문 직업상의 전공을 나누어 일을 하는 것이다.

<사상마련(事上磨鍊)>

양명학은 역동적(力動的)으로 돌아가는 현실의 일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사상마련의 공부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상마련에서 치양지의 진가가 드러난다. 양명은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 가면서 자신을 연마하여야 비로소 진보할 수 있다. 단지 조용함만을 즐길 뿐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자마자 마음이 어지러워져 진보도 없고 조용할 때의 수행도 잘못된다.”고 하며, 사상마련을 강조하였다. 양명은 제자 육징이 자녀가 아프다는 전갈이 오자 이 때의 사상마련에 관하여 교훈을 주었다. 아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만 이 때도 사상마련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감에 너무 집착하여 지나치면 이것은 천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정감이 없다면 이것 역시 천리를 어기는 것이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의 상(喪)에 대한 비애는 확실히 천리(天理)이다. 그러나 사랑과 비애가 성정의 휘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천리(天理)에 어긋난다. 양명이 말하는 사상마련(事上磨鍊)은 바로 인간의 희로애구(喜怒哀懼)에서 자기의 본래 성정을 휘멸시키거나 상실하지 않고 적당히 조절하여 알맞음과 어울림(中和)의 실재를 유지하는 훈련이다. 다음은 사랑마련의 실례를 들었

다.

어느 관리가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 처리하는 일이 번잡하여 학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대에게는 이미 소송을 판결하는 일이 주어졌으니 그 소송의 일에서부터 학문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격물(格物)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송을 심문할 경우에 상대방의 응답이 형편없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되며, 그의 말이 매끄럽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윗사람에게 부탁한 것을 미워하여 자기 뜻을 보태어 그를 다스려서는 안 되며, 그의 간청으로 인해 자기 뜻을 굽혀서 그의 요구에 따라서도 안 된다. 자기 사무가 번잡하다고 멋대로 대충 판결해서도 안 되며 주변 사람이 비방하고 모해한다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서도 안된다. 이 수많은 생각들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며 단지 그대만이 스스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세심하게 극복하여 오직 이 마음에 털끝만큼의 치우침과 기울어짐이라도 있어서 타인의 시비를 왜곡시킬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격물치지이다. 사물을 떠나서 학문을 한다면 도리어 공허한 데 집착하는 것이다.

7. 인성교육과 양명학

우리는 대부분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길들여져 있다. 경쟁적 사회 구조,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스포츠 정신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질로 인정하는 삶 속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겪지 않을 수 없는 정신 현상으로 여긴다. 열등감은 정신 장애와, 공동체 파괴, 각종 범죄의 원인이기도 한 병리현상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스포츠 게임도 연속으로 계속 패하면 스스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타고난 재능이 상대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을 확대하여 마음에 저장하면 병이 되고, 국의 자가 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대로의 양지의 개념은, 치양지하여 양지를 드러내면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임무 수행이 어렵지 않은데,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배우고, 매일 대중매체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지식은 무엇에 쓰나하는 생각을 앎을 수 없다. 양지를 닦는데 박학(博學)이 하나의 수단은 되겠으나, 지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의문이 끝없이 번질 때에 양지가 스스로 드러나는 방법인 고로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교육에 관하여 보다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이 나빠도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성적이 부족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적은 어느 부문을 잘 할 수 있고 어느 부문은 취약함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여겨야 한다. ‘누구나 지닌 양지(良知)를 닦는 노력을 하면 공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양지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대화와 소통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부문을 직업으로 가지게 하면 된다. 국가는 인재의 부문별 안배만 정책적으로 신경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양명학 정신은 사람의 마음에 양지(良知)가 있고, 그 양지(良知)란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양지를 지니고 있고, 양지를 잘 건사하면 다 성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현대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우와 취급이 다른 것도 인정한다. 그러다보니 양지의 개념은 언뜻 거리가 멀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입으로는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신봉하고, 남보다 앞서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산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거개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마음을 정리 정돈하는 일이 중요하다. 필자는 마음을 정리정돈하여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고, 공동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양명학에서 말하는 치양지(致良知)라고 생각한다. 아래에 2016년도 한국양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조지선 교수의 논문 「양명학의 인성교육적 함의」 중 본문을 소개한다.

(1) 인성으로서의 양지

유학에서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여 현실에 있어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는가에 있다. 즉 유학은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곧 유학의 교육은 인성교육과 맞닿아 있다.

유학을 집대성한 공자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의식에 기초하여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공자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종교적 관점에서 도덕의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의식에 기초하여 인간을 규정하는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천명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다. 공자가 인간의 본질을 도덕적 천명사상에서 찾고자 한 바는 논어의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자는 인성의 본질로서의 천도(天道)를 삼았다. 그리고 이 천도를 현세에 구현함으로써, 인간이 천지의 화육(化育-자연이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덕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인간이 천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 인도의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천도는 인간으로서 당위적 실천원리인 인(人)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공자는 인성의 본질을 천도(天道), 인도(人道), 인(仁)으로 규정하였다. 사람이 자기완성을 이루고 천지만물의 질서와 화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인성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자의 선진유학 이후 송명유학의 주요 목적은 “선진 유학의 성덕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의 자각적 도덕실천이 가능한 초월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자각적으로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는 인간을 타율에 의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해 가는 존재로 보기에 가능하다.

송명유학의 양대 산맥인 주자와 양명 역시 인간을 정의함에 있어 옳음에 대하여 스스로 지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사상가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주자와 양명은 인간의 본성(인성)을 발휘하고 확충하고자 한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닌다. 주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을 ‘성인됨의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파악한 후, 자기 수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른바 ‘지식을 지극히 함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인심의 영특함은 앎(지식)에 있지 앎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앎이 없건마는 다만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앎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위의 구절은 주자가 인간의 본성인, 도덕적 근원이자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외부 사물에서 먼저 찾고자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자는 향외적인 인식방법을 통하여 개별 사물의 존재 원리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치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인식한 보편적 이치는 주자에 있어서 향내적인 심성수양과 더불어 천리를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인간의 도덕법칙을 설정하려고 하였다. 그는 전체를 관통하는 천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도덕법칙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도덕법칙의 근원인 리(理)는 인간의 마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른 층의 존재이고, 그것은 인간의 순수 전일한 마음을 통해 인식될 수는 있지만, 마음과는 원천적으로 합일될 수 없는 순수 이념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주자는 이와같이 리(理)를 외부사물에서 궁구함에 따라 이를 확충하기 위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양명과 차이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양명은 마음 밖 외부사물에서 진리를 궁구하지 않는다. 양명에 의하면 마음이란 체용의 관계로서 본체(理)와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체용일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에 있어서 도덕적 근원인 리(理)는 마음 밖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근원인 리(理)와 심(心)을 일치한 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양명의 이러한 입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자와 차이를 가지는데 먼저 주자의 외부 사물에 즉하여 이치를 먼저 탐구하고 이를 도덕적 수양과 병진하려는 자세는 인성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도 엄격한 교육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자는 지적, 덕성, 수

양에 대한 부분에 걸쳐 완벽한 도덕적 인물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도덕적 인물의 완성은 현실에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성인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반해 양명은 인성교육의 완성자인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만 하나의 천리(天理)를 아는 것이며,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천리에 능하다는 것이다. 성인은 본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일마다 천리가 있는 곳을 알아서 곧 그 천리를 모두 실현한다. 본체가 밝혀진 뒤에야 천하의 사물을 모두 알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사물, 예를 들어 사물의 명칭과 도수 및 초목 금수와 같은 것은 그 번잡함을 이루 다 할 수 없다. 성인이 비록 본체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어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다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인은 스스로 꼭 알려고 하지 않으며,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성인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

양명에게 있어서 성인은 성인이라도 천하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명칭이나 도수의 초목과 금수같은 번잡한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알 필요도 없다. 위 인용에서 성인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코 전방위적인 지식을 소유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리를 안다는 것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닌 도덕의 문제로 한정된다. 양명은 성인됨의 문제는 역량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말한다. 어떠한 이가 최상의 도덕적 경지에 이른다면 그의 지식과 역량과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인인 것이다.

정리하건대 양명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인 인성은 도덕적 근원인 리(理)이며, 이 리(理)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이치(天理)로 외부사물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 안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명이 용장오도에서 깨달은 심즉리설의 내용이다. 용장에서의 큰 깨달음(龍場悟道)을 통한 체험은 결국 양명으로 하여금 성인의 도리는 내 안에 있는 본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심즉리(心卽理)의 자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자각을 통해 양명은 마음의 양지(陽地)를 천리로 규정하게 된다.

(2) 양지의 인성 교육적 가치와 인성교육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성의 개념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대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 개혁 조치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인성과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혼란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단락에서는 위 단락의 논증을 통하여 양명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양지로 정의한 바, 이 양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양명학이 가지는 인성 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양명은 마음의 본체를 양지라고 부르고 이것은 하늘에서 명한 인간의 본성과 다름이 아니다. 이와 같은 양명의 사상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양지는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 시비지심은 숙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고로 이것을 양지라 한다. 이는 바로 천(天)이 명한 성이며 나의 마음의 본체이다 스스로 허령명각(虛靈明覺, 우리 마음이 밝게 깨어 있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널리 인지하고 그것에 감응하는 작용)한 것이다.

위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듯 양지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지는 맹자에게 있어서의 능동적 실천성으로서의 양능과 선천적 자각력으로서의 양지의 통합체로써, 인간이 천지만물의 마음, 즉 핵심적인 중추적 존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양지는 천리의 명각이므로 일체 모든 이치의 근거이며, 어떠한 행위나 판단이 옳고 그른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양명의 양지는 그 개념이 양명 사상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의적이며,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왕양명의 사상에서 인성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할 때 양지를 떠나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왕양명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인성의 실천원리이자 도덕적 행위의 준칙인 양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에 있어 양지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첫 번째, 인성 교육은 학습자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자각하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양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닌 능력이다. 또한 이 양지는 그 속성이 맑고 영묘하여 일체의 대상을 올바르게 살필 수 있는 시비지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비지심의 능력을 가진 양지를 기르는 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양지 함양의 교육은 인성교육에 있어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인성교육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상호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 간의 공감과 소통하는 능력은 행복한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양지는 모든 대상의 윤리적 유대를 돈독히 해준다. 이는 양지의 진성측향(眞誠惻恒)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진성측향을 극진히 하면, 효, 제, 충, 신과 같은 도덕원리로 발로된다. 이 발휘된 도덕 원리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언제든지 구체적인 실천도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주변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실천도덕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가진 양지는 인성교육의 목적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셋째, 인성 교육은 인간과 만물 사이에 공존을 위한 환경 윤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학습자로 하여금 환경 보호의 실천에 나아가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왕양명의 양지론은 더욱 원숙한 경지로 접어들게 하여 그의 독자적인 만물 일체론 수립은 물론 양명의 양지 해석이 우주론적으로 확대되어 만물의 존재, 생성에까지 미치게끔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양명의 천지 만물일체설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생태계를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 생명으로서 자신이 보살피고 건강하게 살려 나가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한 부분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의 내면적 덕성, 즉 인(仁)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양양명은 자연 생태계의 온존성 여부의 문제를 인간 자신과 무관한 대상물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양명은 위 문제를 자연 생태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유기체의 의식 중추로서의 인간 자신의 자각과 양지론의 심화로서 천지만물일체설에 입각한 인성교육은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중추

적 존재'라는 자각과 서찰을 통해 환경보호의 실천을 돕는다. 양명에게 있어서 인간은 도덕적 판단 원리,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 그리고 만물과 감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양지를 내재한 자율적이자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양지를 내재한 인간의 인성교육은 내재한 양지의 실현 즉 치양지를 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아래 원문은 양지의 실현이 치양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내 마음의 양지가 바로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의 천리를 각각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 이것은 마음과 이치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양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마음은 그 마땅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쌓는 것도 다만 양지를 실현하는 것(치양지)일 뿐이다.”

양명에 있어서 치양지는 양지가 지녔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 본성인 양지를 인식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서 양지는 인간이 지닌 본성으로 정의한 바, 인성 교육을 인간의 본성, 심성을 실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양지의 실현한 치양지는 인성교육의 목적이 된다. 양명의 사상은 그 목적이 양지의 실현 치양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왕양명사상과 인성교육은 결국 그 지향하는 목적이 양지의 실현, 즉 치양지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결론은 양명의 양지론이 인성 교육에 있어 불가분한 가치와 의의를 지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가며

21세기는 각국이 인공위성을 쏘기를 비행기 띄우듯 하고, 손 안의 폰에서 디지털 문명을 활용하는 시절인데, 오늘날 우리는 정재두 선생을 어떻게 기리며, 양명학 정신을 어느 선으로 수용해야 할 수 있을까. 주자학이 주된 사

상이던 당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에 의해서 양명학을 받아들였으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틀은 서양철학과 서양문화를 수용한 상태에서, 과연 양명학 정신을 어느 만치 수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미래 사회에 양명학 정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논의는 중요하면서 어려운 논제이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개발 시대를 거친 한국인들은 법을 제정이나 국토 개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면 항상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사례가 있으면 따라하고, 사례가 없으면 시도조차하지 않는데 익숙해졌다. 미국에서 공부한 관리인지,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인지에 따라서 정책이 좌우되었었다. 외물에서 이치를 궁구하고, 외부 세계의 사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자학적 풍토에서 서구화한 때문이다. 또한 서양의 학문을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련 지식을 주입시키고 경쟁시켜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왔던 것 역시, 주자학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학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전 세계 몇몇 국가에서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평생교육법 역시 그러하다. 교육기본법에서 이르는 평생교육은 배울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명문화한 것인데, 지행합일에 대한 의지없이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양산하였다. 행함을 계획하지 않는 교육을, 자기 마음에 담긴 천리(天理)를 구현하는 치양지(致良知)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을 교육으로 채우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다는 막연한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끝없는 지식의 탐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양명학적 개념에 의하면 지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지식은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지식이 활달한 사고에 장애가 되기도 할 것이다.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박학으로서 가능한가. 대상과 합일이 될 때에 문리가 트였다고 한다. 그것은 응시, 곧 합일이 가능할 정도의 저 깊은 곳에서의 만남, 양지에 이르는 것을 말함이 아닐까.

양명학에서의 양지(良知)와 실심(實心)을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미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까. 달나라를 정복하고 우주 왕복선을 띄워 천체의 비밀을 허물어가는 시절이다. 하늘에 인격을 부여한 천리(天理)라는

개념이 현대인의 마음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천리가 깃든 양지(良知)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실 대중사회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자신의 생각보다는 대중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대개의 사람에게 양지(良知)와 치양지(致良知)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몇몇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부만이 양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양지 개념을 받아들이고, 치양지를 구현하는 발본색원과 묵좌정심 공부를 하여 천리(天理)를 구현하는 도덕적인 인성을 지니게 되면, 현대인은 성인처럼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하는 의문에 양명후학들은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흥문화원과 시흥시민은 정제두 선생의 발자취를 세세하게 더듬고,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제두의 한국양명학은 무엇인가, 양명학에서 한 단계 더 분화 발전한 한국양명학, 어떤 학자는 이끄기를 정제두의 한국양명학은 중국 양명학의 기저를 받아들이고는, 당시 실권을 쥔 주자학과의 접점을 순화시킨 양명우과의 철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제두의 후학들은 조국의 아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양지에 입각한 지행합일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양명학은 사문난적이었기에, 후대에의 징검다리 역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제두의 한국양명학은 아주 가느다란 사승(師承)의 줄기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흥시에서 정제두 선생을 기리면서, 다시금 한국양명학의 현대적 수용을 과제로 맞이하였다.

우리 사회는 겉은 서구사회화하였으나, 아직도 내면은 주자학적 사고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인다. 초중고에서 하는 학교 공부는 주자학적 격물치지(格物致知)인데, 현대의 과학 지식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대상에서 벗어난 단순한 지식인데 그러한 지식은 주자학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대인의 삶과 생활을 신유학의 정신으로 다시금 조명하여 정제두 선생의 양명우과적 발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주자학과 양명학을 한 자리에 놓고, 여타 현대의 과제를 어떻게 유학 철학으로 해소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6.8.)

양명학의 정신(강연 녹취록)

정인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양명학회장)

양명학의 정신

강연 : 정인재

제1강, 2016년4월20일

정인재 : 1, 2장에 많은 내용을 축약해 놓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신 것 저도 봤는데요, 다시 보니 어렵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보다도 여러분이 질문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권 : 첫 시간인데 그동안 공교육을 통해서 양명학을 접할 때 드는 생각은 강화학파(江華學派)라는 이름을 들어서 강화학파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책을 보면서 강화라는 지역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곡(霞谷)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훈 : 강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재 : 우리가 듣는 데에만 익숙했지,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양명학이 필요하구요. 시흥이 발전하는 것도 양명학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잘 정리된 것만 봅니다. 경전(經典)을 잘 정리해 준 것은 남이 음식을 씹어서 먹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딜 가나 누가 해주는 걸 좋아하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이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 나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무진장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사고하는 것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자학의 가르침입니다. 주자학은 정리(定理)입니다. 정해진 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고정된 원리, 이치가 있으니깐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선진국이 만드는 것, 과거에는 중국, 요즘은 미국이 만드는 것 기술이고 제도고 모두다. 그대로 따르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가지만 바뀌버리면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것, 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러면 노예입니다. 노예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주인이 된다.’ 이 주인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그 때 그 때 합리성, 양명학에서는 조리(條理)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는 겁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가장 알맞은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조리라 부릅니다. 주자학은 정태적(情態的)이고, 양명학은 역동적(力動的)입니다. 상황, 움직이는 사태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철학이 양명학입니다, 고정된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된 틀을 깨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학은 정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양명학은 정해진 답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질문, 독창적인 것이 대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책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익숙하진 않겠지만 시흥은 양명학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는 질문을 안 할 수 없겠죠?

김선옥 : 너무 성급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에서 보면 덕성(德性)을 길러야 한다, 양지(良知)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재 : 덕성(德性)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덕성을 갖는다면 자주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은요?

이병권 : 조선시대 양명학자를 언급해주셨는데요. 허균부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 계곡 선생도 있는데 이 분은 지면이 적어서 언급을 안하신건지 아니면 양명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제두 선생님부터는 양명학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양명학자인건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네. 사실 최명길 선생님은 넣었는데 계곡 선생님은 빠졌어요. 넣어도 되는 겁니다. 최명길 선생과 하곡 선생과 사실 친분이 있거든요. 저의 딸이 영문으로 조선시대의 양명학을 쪽 넣었는데, 거기에 계곡선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유한형 : 양명학을 심학(心學)이라고 하는데요. 이(理)와 심(心)도 하나의 항목인데, 그런데 그게 왜 서로 배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을 벌렸는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한석 선생님, 정제두 선생의 후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다음은 송병호 선생님

송병호 :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주자학을 많이 했는데 양명학은 동적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실학파가 많았는데 양명학을 해야만이 실학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재 : 실학(實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학이란 뭐냐? 실학의 문제를 해야 현실 생활의 학문이니깐.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성태 선생님

김성태 : 읽어보지를 못 해가지고요.

정인재 : 강의를 하려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대학의 학생들처럼 그냥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 왜 오셨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 열심히 들으려고 왔습니다.

정원철 :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에 일이 있어서요 늦었습니다. 정인재 교수님은 서강대 명예교수이면서 양명학에 한 몸을 다 바쳐서 그러면서 시흥시에 양명학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열, 정체성에 대해서 유학(儒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박한 현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굴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 유학과 인성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인데 지역별로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제두 선생님이 실제로 20년 거주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양명학(陽明學)과 유학(儒學)의 관심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인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강사양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의논을 드리고 첫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55세 이상 인부터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실 수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쉽사리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재도 준비돼있고, 질문도 열심히 해주셔서 열심히 들으시고, 추후에 녹취를 다시 풀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올바른 취지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시흥시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양명학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울타리를 걸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서원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주시고 수업 잘 부탁드립니다.

윤강영 : 장유선생님도 양명학자로 돼있구요. 정제두 선생님과 같이 비교를 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재 : 양명학이라는 말은 왕양명의 이름, 호입니다. 이름은 원래 왕수인(王守仁)입니다. 양명동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명대 사람입니다. 주자는 송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좀 아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어디를 갈 때 이정표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어디를 갈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사상을 알 때에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하(夏), 상(商), 주(周)를 삼대(三代)라고 부릅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에 소위 오경(五經)이 편찬됐습니다. 오경은 시, 서, 역, 예, 춘추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 위진남북조, 이 때에는 도가(道家), 노장사상이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위진시대의 학문을 현학(玄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 당시대는 불교가 성행합니다. 그 다음에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북송시대부터 이른바 성리학(性理學) 그 당시에는 도학(道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송시대에 주자학이 비롯된 겁니다. 원나라는 몽고, 몽고시대에 주자학이 관학(官學)이 됩니다. 왜 관학이 되냐면 몽고시대에 과거시험을 보는데 주자가 만든 사서집주(四書集註)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필독서입니다.

그러면 송, 원, 명.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자학과 다른 새로운 학문을 내놨는데 그것을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왕수인이 1432~1529년까지 살았습니다. 명나라 중기입니다. 주자는 1130~1200년까지 살았습니다. 남송입니다. 250년 정도, 300년 정도 뒤에 일어난 학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대에는 고증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주자학과 양명학을 신유학(新儒學)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유학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 생겼는지 이해하시겠죠? 현학(玄學)과 불학(佛學)을 전부 다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비판을 해서 생긴 것이 신유학(新儒學)이다. 그래서 불교, 도교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주자학 속에서 도교, 불교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 수용을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유학을 정리해본다면 유학이 원시유학(元始儒學), 시원유학(始原儒學)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생겼다는 거, 오리지널 그럼 누구부터 시작을 했느냐 바로 공자(孔子)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자에서 맹자, 순자로 유학이 전개됐습니다. 학이불사측망(學而不思則亡), 학이불학측태(學而不學則殆), 논어에 이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대화를 담은 것이 논어지요. ‘배우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념들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힌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할 때 습(習)

은 익히는 겁니다. 그럼 학(學)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한형 : 스승님이나 먼저 사신 분께 물어서 아는 것.

정인재 : 네, 물어서 아는 것.

이병권 : 경험

윤강영 : 살아가는 것.

전남훈 : 인간의 성을 배우는 것.

정인재 : 철학은 자꾸 따지려 드는 겁니다. 대답을 못할 정도로 말이지요. 오바마가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나라 기자들은 손드는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청강을 했습니다. 교수가 말하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한국은 창의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줄 모르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자, 그래서 양명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중요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받는다는, 효(效)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배운다 이러면, 말씀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모방(模倣)입니다. 모방이란 뭐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왜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을 선호합니까,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서구의 문물을 그대로 배울 때 철로를 낼 때 자갈도 수입했답니다. 그대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되니깐요. 그것이 바로 효(效)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시대는 중국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학에는 효(效)만 있냐. 중국은 짝퉁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를 만들지요. 베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예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니까. 습자(習字)지요. 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베끼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김정희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체를 만들었지요.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는 때는 각(覺)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깨우치면 자기 것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學)에는 효(效)와 각(覺), 두 측면이 있습니다. 주자학은 효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명학은 각(覺)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학(學)에 해당합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학(學)과 각(覺)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각(覺)을 못해요. 자기 생각을 가져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생각을 자꾸 하면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노벨상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맹자는 사(思)의 측면을 강조했고, 순자는 학(學)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양쪽을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의 전체 철학의 역사를 49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것을 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진나라는 관리가 스승노릇한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오경을 스승으로 삼는다. 오경중심의 유학이라해서 경학(經學)이라 부릅니다. 위진시대는 현학(玄學), 수당시대는 불학(佛學), 송원시대는 리학(理學), 명나라시대는 심학(心學)이라 부릅니다. 청나라는 기학(器學)이라 부릅니다.

유한형 : 그럼 명나라 시대는 그래도 주자학이 판을 치거나 갈등이나 대립은 없었습니까?

정인재 : 있었죠. 전국적으로 주자학입니다. 양명학은 민간의 학문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삼엄한 시대에 왕양명과 정제두가 양명을 공부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흥이 중요한 고장이예요. 하곡 정제두 선생이 강화에 가서는 경학(經學)을 위주로 했지 실제로 여기에서 양명학을 많이 했습니다. 양명학적인 정신을 시흥(始興)에서 다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漢)나라는 오경(五經)이지 않습니까? 시, 서, 역, 예, 춘추. 기독교에서는 구약, 신약이 있지요. 구약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등등.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

이 서(書)입니다. 하, 상, 주 삼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서경(書經)입니다. 시경(詩經)은 주나라 때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유행가를 모아둔 것이 시경입니다. 유행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굳세어라 금순아’ 이런 노래들은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이거든요. 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易經)은 원래 점치는 겁니다. 점쳐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주역 강의할 때 해봤습니다. 긴 발 50개로 해서 임의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괘가 나옵니다. 점괘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 귀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할까, 말까 이럴 때 점을 칩니다. 점은 길흉화복(吉凶禍福)인데 이것을 선악(善惡)정서(情緒)로 바꾼 것이 공자입니다. 예(禮)라고 하는 것은 국가제도부터 결혼, 상례 등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집에서 했습니다. 대만을 예전에 갔을 때 행천궁(行天宮)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춘추(春秋)는 춘추전국시대의 원래는 주공이 예를 만들었는데 예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통치가 됐었죠. 하극상(下剋上)말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 시(弑)라고 부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殺)이라고 합니다. 시라는 말 자체가 정당치 못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공자는 춘추에서 역사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지요.

그러면 사서(四書)는 논어, 대학, 맹자, 중용인데 주자가 만든 겁니다. 원래 대학과 중용은 예기(禮記)에 있었습니다. 주자가 다시 만든 거지요. 사서는 새로운 경전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 구약만이 있었는데 신약이 생겼다는 거지요. 오경에서는 공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오경을 따랐습니다. 주공(周公)이 오경의 주인공이라면 사서의 주인공은 공자(孔子)입니다. 오경유학을 경전(經典)유학이라 한다면, 신유학은 주자가 만든 유학입니다. 오경은 한 나라 시대에 경학(經學)이 붙지만, 경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훈고학(訓詁學)입니다. 문장풀이입니다. 서양에서의 문헌학에 해당됩니다. 신유학(新儒學)은 철학(哲學)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병권 : 아까 질문 받으신 것은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거죠?

정인재 : 네 다음시간에 할 수도 있고, 일단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

다. 그 다음에는 현대 신유학이 있습니다. 유학도 원시유학, 경전유학, 신유학, 현대신유학. 이렇게 4단계입니다. 현대 신유학은 중화인민국시대가 있습니다. 원시유학은 오경중심이고 그 다음 훈교학입니다. 유, 불, 도가 있습니다. 유교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됩니까? 효, 제.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죠?

이병권 : 사랑입니다

정인재 : 불교는? 도가는?

이병권 : 자비, 무위

정인재 : 유한형 선생님 유교의 핵심이 뭘까요?

유한형 : 인의예지라고 들었습니다.

정인재 : 효제(孝悌), 인(仁) 이런 것들은 모두 덕목입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까지 있지요. 친의별서신(親義別序信)이 있습니다. 친은 부자유친(父子有親), 의는 군신유의(君臣有義), 별은 부부유별(夫婦有別), 서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신은 붕우유신(朋友有信)입니다. 오륜입니다 바로. 유교(儒教)는 인륜(人倫)이 핵심입니다. 이 인륜을 밝히는 동네가 명륜동(明倫洞)입니다. 성균관 근처에 있지요. 서울은 유교와 매우 관련된 곳입니다. 도가는 무위자연, 불교는 연기설(緣起說)입니다. 야경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인류를 떠나는 유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륜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맹자에 나옵니다. 공자에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지요. 삼강(三綱)이라는 것도 있지요. 원래 오륜삼강이라 해야 하는데 삼강오륜이라 합니다. 삼강은 한나라 때 생겼습니다. 전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삼강입니다. 법가의 이념과 음양과의 이념이 유교 속에 들어 온 것이 삼강입니다. 유교가 변질된 겁니다.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이것이 삼강입니다. 강(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국(國)에서 군위신강(君爲臣綱), 가(家)에서는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입니다. 위아래의 개념이 삼강입니다. 주종관계입니다. 충신, 효자, 열녀를 전통사회에서는 중요시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 가부장 시대에서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었습니다. 3가지 따라갈 길.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나이 들어서엔 아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안돼요.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이 생겼습니다.

유한형 : 법가와 음양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인재 : 국가를 통치하는데 유교는 교육을 중시하는데 안되지요. 강력한 통치질서. 군주는 양 신하는 음.

이병권 : 음양의 질서를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정인재 : 그럼요. 원리를 따라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륜은 유교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삼강을 없앴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습다. 오륜에 다 있으니깐 삼강을 없애야 합니다. 국가통치를 위해 만든 것 뿐이지요.

이병권 : 법가의 요소가 뭐라 하셨지요?

정인재 : 상하, 주종 개념입니다. 통치 질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나라 때 변질되었던 유학을 공자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강(三綱)과 오륜(五倫)하고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자학은 삼강을 용인합니다. 하지만 양명학은 삼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현대신유학은 신유학과 서양철학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현대 신유학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야 양명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2강, 2016년4월27일

정인재 : 질문할 것을 먼저 주세요.

유한형 : 책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깊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성(理性)을 초월해야한다는 내용이 이성(理性)으로 믿지 않으면 미신, 광신이라 했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정인재 : 이성(理性)의 합리성을 갖지 않으면 미신(迷信)이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저 철학적이기 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초월해야 영성(靈性)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믿고 합리(合理)성에서만 머무르면 안된다는 겁니다.

송병호 : 영성(靈性)이 깊어지면 종교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인재 : 미신(迷信)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미신은 구복(求福)적인 거죠. 맹신(盲信)할 수 있다는 거죠.

유한형 : 그릇 기(器)를 써서 기학(器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도학(道學)에 배치되는 것이 기학(器學)인데, 성리학을 원래 도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역(周易)에 형이상자위지도(形而上者謂之道), 형이하자위지기(形而下者謂之器)라고했습니다. 성리학(性理學)을 예전에 도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도학은 도에 통(通)이 있다합니다. 형이상자 했을 때 요즘말로 했을 때 철학이고, 기학은 개별 과학입니다. 농(農)도 일종의 기(器)에 들

어겁니다. 실학자라는 사람들은 ‘도(道)가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합니다. 현실에 맞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기학(器學)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사철(文史哲)을 제외하면 모두 기학(器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리, 형이하(形以下) 이런 것을 기(器)라고 하는데 그 학문을 기학(器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학(實學)은 철학이 아니라, 기학(器學)적인 면에서 자꾸 실학을 말합니다.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제치용(經世致用),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실학(實學)이라고 하는데, 정덕(正德) 이용후생(利用厚生)이라는 겁니다. 정덕(正德)은 빼버리고 이용후생만 이야기합니다. 제도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가 많지요. 농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실학자가 많은데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빠진 실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심(實心)을 ‘얼’로 번역했습니다. 도학(道學)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인데 선비들은 현실적인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오늘날 철학자들도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남훈 : 양명학에서 실심(實心)으로 내려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용어가 있지요. 철학적인 실사구시 용어와, 고증학적 실사구시가 해석이 다른 것 같아서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인재 : 양명학에서는 사(事)가 중시 됩니다. 사상마련(事上磨鍊)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에서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른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지(良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나를 고정시켜 놓고 봅니다. 양지는 자기 내면에 있는 나침반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이야말로 양지실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도적인 실학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실학’입니다.

유한형 : 사상마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양지(良知) 자체를 연마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정인재 : 네, 그렇습니다. 일을 만났을 때 청탁이나 뇌물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양지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단련하는 겁니다.

이병권 : 신유학(新儒學)이 성인(聖人)의 도(道)를 닦는다고 하셨는데, 주자학과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리학과 양명학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목표는 같습니다. 성인의 학문(聖學)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양명학과 주자학은 성학인데, 우리나라는 양명학을 성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 리학(理學)과 심학(心學)으로 나누었습니다. 심학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했습니. 불교도 이단, 양명학도 이단이라고 했습니. 저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이 성즉리와 심즉리인데, 글자로 하면 성리학이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양명학은 심리학이 됩니다. 성리학이나 심리학이나 리학(理學)인 점에서 같습니다. 서양의 학문(심리학)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습니. 주자학과 양명학은 성학(性學)과 심학(心學)으로 해야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즉리, 심즉리의 리(理)는 모두 천리(天理)를 가리킵니다. 천리라고 하는 것은 신유학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북송의 정명도가 천리(天理) 두 글자는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고 했습니.

그 이전의 천(天)은 뭐냐 인격적인 것인가?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주나라(周)부터 천(天)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周)나라 때부터 인간중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명은 늘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天命非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選民)의식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나라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닦는(修德) 사람한테 천명(天命)이 간다고 했습니다. 천자(天子)라는 사람의 통치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덕을 닦아서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덕(德)의 사상과 신(神)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천은 상당히 도덕적인 의미의 천(天)입니다. 천에는 도(道)가 있고, 하늘의 의지(意志)가 있는데, 공자는 인륜의 도를 말했습니다. 천도(天道)가 내려오다가 정명도에 의해서 법칙적, 도덕적인 것을 통틀어서 천리(天理)라고 불렀습니. 천도가 천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 법칙적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오리치가 중국인이 주재적, 인격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천의 의미를 천주(天主). 그래서 천주교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유한형 : 천(天)에다가 주(主)를 붙이면 인격적인 것을 부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인격을 부여해서 오히려 격하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재 : 기독교는 인격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하게 만든 것이 있지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 얼굴, 페르소나입니다. 서양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학에서 성인은 누구인가? 왕양명도 인생제일사(人生第一事)가 뭐냐 했을 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인(聖人)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에서는 요(堯), 순(舜)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선양했습니다. 백성들이 송사가 생기면 요 임금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순임금한테 갔다는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 성인(聖人)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 재력, 학력 모두 발휘할 수 있는데 덕(德)을 발휘하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덕(德)에 의해서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체득(體得)을 해야만 도덕적으로 가는 것이지, 몇 마디 듣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학, 양명학을 하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명학은 서양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서양인은 인생제일사와 양명 후학자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양인은 철학적 토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주자, 양명학 모두 신유학(新儒學)입니다. 주자학에서의 성인모델은 요순(堯舜)입니다. 양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학에서의 성인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인데 선비는 본, 상은 말. 본말(本末)의 사상이 있습니다. 선비는 벼슬하는 사람입니다. 벼슬한다는 것은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교에서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공상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선비는 갑질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인(賢人), 성인

(聖人)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덕본재말(德本財末)이 주자학에 있었습니다. 주자학에서 성인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비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현명한 사람은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왕을 상당히 성인(聖人)이 되게끔 만드는 것, 내성외왕(內聖外王)입니다. 군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자(荀子)는 백성과 왕을 물과 배와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사농공상에서 본말론(本末論)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양명학에서는 사농공상이 이업동도(異業同道)입니다. 성인의 도를 실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글을 읽어서 벼슬길을 나갔든 농사를 지었든 모두 똑같은 겁니다. 기술자, 노동자 모두 공(工)이라고 하는데, 공에 있는 사람도 양지를 지키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인도 이윤을 취하되, 성인의 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職業)을 달리하지만 도(道)를 같이한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직업(職業)은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다는 겁니다. 신에 뜻에 의해 일하기 때문에 신성한 겁니다. 귀천(貴賤)이 없는 거지요. 직업에 대한 사명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명학은 누구에게나 수평적으로 성인이 될 길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정원철 : 교수님은 동양철학 중에서도 양명학을 연구하시는데요. 교수님이 왜 양명학을 선택하셨습니까?

정인재 : 연어가 모천(母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는 모교가 제 모천입니다.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감독이 없이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모천에서 터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철 : 양명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성인(聖人)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유교를 전공해야만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인(聖人)은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양명학이여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양명학은 종교적입니다. 주자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명학은 불교,

이슬람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아니마(anima)라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양지(良知)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명학의 정신은 세계 어디에도 통할 수 있습니다. 양명학은 개방적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양지(良知)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양명학의 정신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됩니다.

유한형 : 성리학자들이 이(理)와 기(氣)로 많이 나뉘셨잖아요. 이기로 분리해서 심성을 말하는 것(성리학)은 양명학에서는 틀린 것인가 싶습니다.

정인재 :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양명학에서는 심즉리(心卽理)를 말했습니다. 심(心)이 기(氣)이기도 합니다. 이기(理氣)가 합치돼 있는 겁니다. 심(心)과 심성(心性)도 합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이고 아래가 없습니다. 역동(逆動)성을 갖기 때문에 협심, 합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경기를 보면, 양명학에서는 레프팅(리기가 같이 움직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협조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따라만 가는 것은 주자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붓글씨는 서도(書道)라고 합니다. 글쓰기에는 도가 있다는 겁니다. 장자에 포정해우(庖丁解牛)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칼에 소를 가르는데 거지요. 도(道)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서도(書道)도 도의 경지이기 때문에 양명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명학도 유학(儒學)입니다. 경전(經典)유학에서 오경(五經)이 생기고, 신유학에서 사서(四書)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서오경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시유학은 제자백가 중에, 공자는 제자(諸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대(漢代)에 와서 정통이 된 겁니다. 유학은 인문학입니다. 권력(權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덕(德)에 의한 학문입니다. 서양과 유학의 차이점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학(儒學)은 인간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關係)를 중시합니다. 관계를 룬(倫)이라고 부릅니다. 인륜 중에서 무수한 관계가 있지만 다섯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원시유학, 경전유학이건 오륜(五倫)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

信)입니다. 원시유학(原始儒學)의 맹자가 말한 겁니다. 공맹(孔孟)의 철학이 나온 겁니다. 법가적, 음양적인 요소가 들어가 삼강(三綱)이 생겼습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다른 점은 삼강을 말하느냐 안하느냐입니다. 유학에서 삼강을 떼버려야 현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家)부터 말해야 합니다. 부자유친(父子有親)할 때 친은 가장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친(親)을 확대시킨 것이 인(仁)입니다. 친 속에는 자(慈)와 효(孝)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자학에서는 의(義)를 많이 말하고, 양명학은 인(仁)을 많이 말합니다. 하곡이 생리(生利)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인(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인을 실현하는 방법을 양명학의 정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부강(夫爲婦綱), 부위자강(父爲子綱)입니다. 강은 버리, 그물이죠. 군부부가 도덕적 모범을 보여줘야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삼강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륜(五倫)은 쌍무(雙務)적 관계(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리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군(君)은 리더입니다. 신(臣)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의(義)는 공평, 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샌더스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판매의 3배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義)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남녀유별이 아닙니다. 자연성도 해결하고 도덕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부유별입니다. 어른과 어린이는 서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장(長)의 의미는 뭘까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老)와 소(小)가 유서(有序)인줄 알아요. 어른은 늙은이와 다릅니다. 노(老)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고, 어른은 덕(德)을 닦아야 생기는 겁니다. 덕 있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을 할 때는 화합도 잘됩니다. 제가 양명학회장이 됐을 때 강화에 하곡 묘소를 가봤어요. 묘소를 문화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술대회를 국제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長)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질서(秩序)에서 질(秩)은 공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서(序)는 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서(序)는 담벼락을 말하기도 합니다. 담을 넘어야 어른이 됩니다. 답답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장(長)을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덕(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교사상입니다.

붕우유신(朋友有信)에서 신(信)은 사람의 말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도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誠)입니다. 신(信)에서 성(誠)으로, 양명학은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성의(誠義)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륜(五倫)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삼강오륜을 그대로 놓습니다. 양명학은 삼강(三綱)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3강, 2016년5월4일

정인재 : 질문받겠습니다.

이병권 : 왜 양명학에서는 양지(良知)를 설정했는지, 공자께서는 인(仁)을 중용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양지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중선 : 주자학, 양명학에서는 둘 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요시 여기는데 양명학은 격물치지를 하고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반면에, 주자학 같은 경우는 일단 앎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송병호 : 본연지성은 정주학에서 나오는 건데 본연지성(本然之性)이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기질이 나쁜 사람은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아닌 사람은 덜 쌓이는데 공부로 인해서 투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인재 : 주자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핵심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에서 주자학은 양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명학에서만 양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 양지냐? 양지양능(良知良能)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능은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맹자는 나눴습니다만 양명은 양능까지 포함해서 양지를 말했습니다. 양지 속에 지행(知行)이 있다는 겁니다. 맹자를 이어받았으면서도 양지양능 이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행(知行)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식(知識), 지각(知覺)과 양지(良知)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것. 양지는 지식, 지각이나? 아닙니다. 지식과 지각은 대상이 있는 것. ~을 안다는 것이고 양지는 ~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을 안다는 것은 행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영을 예로 든다면 수영을 안다는 것과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

은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내가 직접 실천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양지(良知)입니다.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 구이지학(口耳之學) 그것은 너무 얕다는 것이지요. 자각적(自覺的)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속에 양지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단지 지식(知識)적으로 아는 것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아는 것은 양지(良知)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지가 그래서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인(仁), 맹자의 인의(仁義), 묵자의 겸애(兼愛), 도가의 무위자연(無爲自然), 불교의 연기(緣起)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攝理),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양지(良知)는 ‘공맹의 인의(仁義)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근원적인 것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양심(良心)과도 구분이 됩니다. 양명의 철학은 바로 양지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병권 : 양지(良知)는요 발현(發現)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발현하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인재 : 치양지(致良知). 치가 발현입니다. 스스로 발현한다고 생각하는 양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현성양지(現成良知)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양지가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제자도 있습니다. 수증파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쓸 책이 양명후학(陽明後學)입니다. 양지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냐 라는 학파를 중심으로 책을 낼 생각입니다.

유한형 :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즉리(性卽理)는 주자학에서는 천리(天理)로 삼는데, 양지는 천리로 삼는데 양명학에서는 이기(理氣)를 합해서 천리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理)와 기(氣) 분화된 개념이 양명학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남훈 : 학설이 다르다. 다름 속에서 현대 양명학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선생도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정인재 : 주자학과 양명학의 다른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책에 썼습니다. 민(民)에 대한 태도, 민을 어떻게 보느냐도 썼습니다. 신민(新民), 친민(親民) 이것이 이기론(理氣論)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리(理)는 태극(太極)입니다. 표준이지요. 기(氣)는 이른바 음양오행(陰陽五行)입니다. 오행은 금수목화토 이것이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理)가 상(上)이고, 기(氣)는 아래다. 리상기하(理上氣下), 분명히 분리한 것이 정이천입니다. 정이천은 주자학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에서는 성품을 나눌 때 이 태극(太極)은 본연지성(本然之性)입니다. 기(氣)는 기질지성(氣質之性)입니다. 주자학은 분석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기질에는 청탁(淸濁), 편정(偏正), 후박(厚薄)이 있습니다. 맑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聖人)이라 부릅니다. 민(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봤을 때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士)는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고, 공상(工商)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공상은 말업(末業)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본말(本末)로 나뉘었습니다. 사는 리(理)를 주로 원리로 생각하고, 공상은 기(氣), 힘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의 지배원리를 철학적으로 규정지어놓는 겁니다. 상인, 기술자, 노동자들은 말업에 속하는 것이고, 벼슬을 하는 사람은 본업에 속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교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新)입니다. 철학에 의해서 신민(新民)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양명학에서 사농공상을 이업동도(異業同道)로 봤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도(道)를 실천하는 데는 똑같다는 겁니다. 정명도는 도역기 기억도(道亦氣 氣亦道)라 말합니다. 미분(未分)상태입니다. 이기(理氣)가 상하로 분리가 안 됩니다. 정명도의 사상을 받은 것이 양명학입니다. 기(氣)는 음양오행으로 늘 역동적입니다. 이기(理氣)가 늘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주자학에서는 정태적으로 보고 양명학은 동태적으로 봅니다. 움직이는 현실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설명하려는 것을 주자학입니다. 움직이는 현실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은 양명학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물처럼 말이지요. 기(氣)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리(理)도 따라서 함께 흐른다는 겁니다. 이기(理氣)가 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유한형 : 이(理)를 기(氣)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정인재 : 그렇습니다. 이와 기의 관계를 불상잡(不相雜), 불상리(不相離)라고 합니다.

정인재 :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덕목입니다. 어린 애가 우물에 빠졌을 때 얼른 구하고 싶은 마음(惻隱之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미담(美談)이면서도 도덕적(道德的) 정감(情感)이 드러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단(四端)입니다. 칠정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慾), 일곱 가지 정감인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퇴계는 분명히 나눴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所從來)를 따졌습니다. 사단과 칠정을 봤을 때 사단(四端)은 리(理)에서 칠정(七情)은 기(氣)에서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율곡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칠정 중에서 좋은 것만 나왔다는 겁니다. 퇴계는 주자학적으로 리기가 섞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본연지성,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불상잡, 불상리를 얘기했는데, 불상리의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정암(羅整庵), 왕양명과 같은 시대에 산 주자학자입니다. 민간학으로 양명학이 퍼지니깐 주자학자 나정암은 양명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학설을 세우는데 이기와 심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성을 나누는 것은 철저히 주자학적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지요, 이런 것들을 기(氣)라고 합니다. 그전에 설계를 하지요. 그것이 리(理)입니다. 설계도 없이는 뭐든 되지 않습니다. 설계도와 자재가 합쳐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만물은 설계도와 자재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주자학에서는 도(道)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길을 먼저 만들어야 다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등산하는 길은 길이 나있고 만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 먼저 있으니 다녔다라는 것이 주자학이고 다니다보니 길이 생겼다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이와 기가 떨어져 있는 적이 없다. 그것을 주자는 나눠서 정태적으로 봤지요. 식민통치시절 일본은 한국의 문화, 민속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리기의 원리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인도의 인구를 영국에서 식민통치할 때는 엘리트들이 인도의 정치, 사상, 문화, 예술을 다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상하(上下), 주종(主從) 이런 것을 확실히 만든 사람이 주자입니다. 양명학은 그것과 반대로 누구나 다 사농공상이 직업만 다르지 성인이 되는 길은 같다

고 봤습니다. 독일어에 직업이라는 단어가 베로프(Beruf)라고 합니다. 원래 로펠 부르다(rufen)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신성한 겁니다. 독일에는 마에스트로(Maestro)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직업에 충실히 임하면 됩니다. 주자학적 사고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신안상인(新安商人)같은 사람이 나도 돈을 벌어서 양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이업동도입니다. 정주영이 대통령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기업발전에 투자를 했으면 오늘날보다 더 큰 발전을 했을 겁니다. 자기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수평적이지요.

유한형 : 말업(末業)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신(新)을 썼는데 친(親)은 어떤 논리일까요?

정인재 : 누구나 다 친(親)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로 봤는데 주자학에서는. 양명학은 오늘날도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하기 때문에 주자학을 이용한 것도 있지요.

유한형 : 주자학과 양명학을 중국에서는 같이 배향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양명학을 그렇게 배격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인재 : 강화에서 제가 얘기 했잖아요. 박세채의 제자가 정제두입니다. 성균관 문묘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교의 형편이 아직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할 수 있는 양지(良知)를 갖고 있으니깐 친(親)을 쓴 겁니다.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양지를 발견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친(親)자입니다.

전남훈 : 친(親)자가 나와서 말인데요. 단순하게 친하다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전제가 된다는 친이라는 거죠.

정인재 : 친(親)이라고 하는 것이 인(仁)의 최초, 정감이 인(仁)이 친(親)에서 나온거거든요

유한형 : 권력층이 사민(四民)한테 베푸는 건데 시혜(施惠)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인재 :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군주시대이니까 보필하는 것은 재상 아닙니까. 군을 비롯한 말단 공무원까지도 민(民)을 위한 민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친(親)을 해야지, 신(新)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민(民)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더하지요. 주자학적인 것보다 양명학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집단주의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명학은 한 사람 개체가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개체가 더욱 중요합니다. 양명학에서 공동체보다는 개체, 양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알맞은 철학이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훈 : 친애(親愛)하는 국민여러분이라고 할 때 이미 민주화된 양명학적 사상이 깊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인재 : 천지만물일체(天地萬物一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친(親)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철 : 양명학이 이업동도(異業同道)라든가 양지(良知)라든가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주의(個人主義) 있지 않습니까. 개의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양에서는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개인주의가 발원 됐다고 보면, 동양은 군주가 있는 상태에서 양명학이 들어와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인주의가 서양보다도 더욱 앞선다는 생각도 들면서, 현대 우리사회는 개인주의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서구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와 양명학에서의 개인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진단이면서 양명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정인재 :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불교는 개인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연기(緣起)를 이야기하는데 인(因)과 연(緣)을 이야기하지요. 인(因)은 개인입니다. 연(緣)은 주위의 조건입니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연입니다.

인은 깨닫는 주체입니다. 깨달으면 부처, 못 깨달으면 중생입니다.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볼 때 개인의 자유나 공동체의 평등이나, 근대 프랑스혁명의 주체 아닙니까. 그때부터 서양은 개인, 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나왔지요. 자본주의에도 고전적 자본주의가 있고 신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자본주의로 가는 형편입니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동체주의의 극단이 북한입니다. 사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지요. 주자학적인 공산주의, 북한 주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國)과 가(家)가 있을 때 시민사회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국에서 바로 가로 가니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조 통치는 국(國)에서 가(家)로 가는 통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화 되면서 국(國)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國)이 가(家)를 먹여 살리고 가(家)는 국(國)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파이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한 것이 오늘날 대기업, 재벌이 생겨난 거죠. 국내경제로는 안되니 파이를 키운 겁니다. 그것이 산업화, 근대화입니다. 전통유가에서 수신(修身)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입니다. 가(家)에서 국(國), 그 사이에 공동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시민사회(市民社會)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은 가(家)와 국(國)은 옛날에 혈연 공동체에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君)은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國父)라 불렀지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가정을 가지고 국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육영수 여사도 국모(國母)라 불렀지요. 이렇게 되다보니 작은 회사도 많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공동체는 공동체에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공동체입니다. 각 주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시민사회입니다. 요즘은 국민보다는 시민정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의무가 더 중시됩니다. 유교의 오륜(五倫)은 쌍무(雙務)적인 관계입니다.

시민단체는 의무도 중시하지만 권리가 앞서지요. 공동체를 군(群)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와 개인은 군(群)과 기(己)의 관계입니다. 서양에서 ‘미래자유론’이라는 책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권(權)은 저울질 하는 겁니다. 한계가 뭐냐, 그것이 자유론입니다. 오늘날도 시민사회에서 개인은 가(家)의 일원이면서 국(國)의 일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느냐, 의무를 중시하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울질을 잘 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적절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양명학의 양지(良知)입니다. 정당한 이윤을 취하되, 뇌물, 담합 이런 짓을 안했을 때 상당히 사회는 건전해지는 겁니다. 양명학적 태도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정원철 : 개인과 공동체는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출발선을 개인에서 비롯해서 공동체로 가야되는데 그 개념이 양지(良知)이고 치양지(致良知)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고, 현대 경영에서 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재 : 불교는 주위의 조건과 자기 개인이 얽혀있는 거거든요. 내가 삼독(三毒)을 없애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유교에서는 인륜을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불교는 떠나고(서) 개인의 깨달음만 생각하거든요.

송병호 : 불교에서 중생(衆生)을 구원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인재 : 깨닫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양명은 오륜(五倫) 내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유친(父子有親)에서도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양지(良知)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불적인 요소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여기 시흥에서 추곡서원을 만들어서 양지(良知)를 키운다면, 시흥이 앞서가는 겁니다. 시민사회는 나라와 집안사이에 이익단체가 드러나는데 너무 이익만 내세우지 말고 의무도 해야 하고 의무와 권리를 잘 조화시키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양지(良知)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병권 : 기독교 정신에서 희생(犧牲)과 봉사(奉仕)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신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유학에서도 그런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양지(良知)가 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종교문제를 이야기 할 때 유교에서 자기희생이라는 것은 자식을 위

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하면 기독교처럼 하면 넓혀지는 겁니다. 친친인민애물(親親仁民愛物). 이것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상당히 앞서죠. 가족보다 개인이 앞섭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보더라도 이상국가는 적어도 지도자는 가(家)가 없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을 못하니깐요.

유한형 : 종교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성격이 되는 건지. 여물동체(與物同體), 그렇다면 깨진 기왓장 하나도 내 몸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종교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재 : 천지만물일체(天地萬物一體)론은 서양에서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비판합니다. 개발을 하니까. 지구를 살리는데 있어서 왕양명의 천지만물일체론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정원철 : 치양지를 ‘자기 관리’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인재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욕심,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양지 때문에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훈 : 치(致)라는 것은 양지(良知)의 근본적인 발동, 실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인재 : 개인은 늘 사회와 연관이 돼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주체성, 남도 인정하는 겁니다. 항상 관계 속에 있으니 남도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원철 : 유학 자체가 사후(死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속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유학이 아니어도 유학의 성인(聖人)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유학을 하지 않았어도 있거든요. 치양지(致良知)의 개념에 충실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유학 내에서만 보지 않고, 세상에 내놓으면 유학의 가치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재 : 유학이 원래 방내(方內)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나 불교는 방외를 이야기 합니다. 규범을 벗어난 세계이지요. 유(有)의 세계에 한정돼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인륜을 얘기했지, 인간과 천, 물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유교가 불교나 도가를 받아들여서 신유교(新儒敎)를 만들었습니다. 현대(現代) 신유가(新儒家)는 서양철학과 신유가를 가미한 겁니다. 양명학도 서양의 칸트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주자학도 신실재론과 연관시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외연(外延)이 넓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한문을 하는 철학자들은 외국인과의 대화가 안됩니다. 양쪽을 종합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양명학이 심학(心學)이니깐 분석철학, 해석학, 현상학(現象學)도 공부해봤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현상학이었습니다.

유한형 : 심외유물(心外有物)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인재 : 나 밖에 물(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입니다. 그것이 실재론(實在論)입니다. 관념론(觀念論)은 모든 것은 관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재론과 관념론 사이에서 현상학(現象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식은 ~에 관한 의식이 지 순전히 독립된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물(外物)에 관한 의식이 내 의식 속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실재론은 ~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존재는 인정(epoche, 판단중지)하는 겁니다. 내 의식 안에 들어온 것만 사실 그대로 기술하자는 것이 현상학(現象學)입니다. 불교의 유식론(唯識論)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심외무물(心外無物)은 물(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중지 하고 내 의식에 들어온 것만 이야기하자는 것이 현상학(現象學)이고, 그런 점에서 양명학과 유사합니다. 주자학은 정리(定理)가 있다. 그러니 탐구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양명학은 현상학에 가깝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정원철 : 눈썰미가 있다는 말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 개를 보면 열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개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심외무물(心外無物)이니깐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질적인 저하, 이런 것들의 반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재 : 관상가와 보통사람이 사람 얼굴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누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명학(陽明學)입니다. 어떤 기준, 틀이 없다는 거죠. 질적인 저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자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강, 2016년5월11일

정인재 :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한 질문인데 아직 답을 못했어요. 전남훈 선생님 질문해주세요.

전남훈 :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에 관해서 치양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원철 :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實心實學)이 하곡만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심(實心)이라는 말이 양지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독자적이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양명학의 양지와 치양지 격물치지에 관련된 것들을 적어놓은 것뿐이지 양지체용도가 특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한형 : 주자학과 양명학을 비교해주셨는데, 계신공구(戒愼恐懼)가 중용에 있는 건데, 계신하고 공구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로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양명학에서 양명후학으로 넘어가면서 치양지(致良知)에 대한 논의가 8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대표적인 것이 양지가 그 자체로 드러난다는 양지현성과 그리고 양지귀적과, 양지정통과는 양쪽을 다 수양을 해야만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왕양명이 양지에 본체도 있고 작용도 있다는 말을 다 했어요. 양지를 본체로 인정하지 않는 주자학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주자학에서는 양지를 ‘단지 지각 작용일 뿐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천리(天理)가 아니다. 도덕적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양지는 본체(本體)가 있고, 작용(作用)도 있는 것인데 양지체용론을 중국학자들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곡선생이 정확하게 체용도를 그렸습니다. 율곡(栗谷)의 사상이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는 말을 해서 율곡학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곡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론화해서 드러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곡은 양명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과들까지도 다 공부했습니다. 양명제자들, 특히 왕용계(王龍溪)라는 제자의 문집이 하곡선생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철도간부가 북경대 도서관에 소장했는데 하곡이 왕용계를 봤으면(읽었으면) 당시 논쟁했던 것을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양지체용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왕양명의 만물일체론(萬物一體論)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간과 만물, 우주는 한 몸이다(與物同體). 그래서 어린애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자기애(自己愛)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 몸과 아기 몸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남과 나를 동일시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만물일체론(萬物一體論)입니다. 인간과 동물까지도 감통(感通)이 가능합니다. 맹자의 제나라 성왕이 소가 한 마리 떨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임금 앞을 지나는데 벌벌 떠는데 큰 종을 만들고 소피를 바르는 의식(鑿鍾)이 있는데 국가의식을 그만둘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제왕은 소를 양으로 바꾸고 소는 직접 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소하고 나의 마음과 일체가 된 것입니다. 왕양명은 식물도 가지가 꺾이는 것을 보고 생명의 의지가 뻗어나가는데 꺾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만물일체(萬物一體)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느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상을 볼 때 왕양명의 사상만이 교과서처럼 금과옥조로 쓰고 있습니다. 양명학에서 만물일체론은 생명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지(良知)의 표현이다. 천리(天理)는 곧 양지라고 말합니다. 생리(生理)라는 말을 써서 주자학적인 윤리하고 구분되는 그러한 철학을 하곡 정제두 선생이 주장을 했습니다. 왕양명은 생리하고 양지체용에 관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유한형 : 양지에 있어서 체와 용을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인재 : 양지실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용계의 문집 속에는 실심(實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심실학은 정제두에게만 있습니다. 정제두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문인이 정제두를 ‘실심실학의 유종(儒宗)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실학박물관을 가보면 ‘오가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실심실학입니다. 지난번에 실학에 대해서 도와 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물, 서학이 들어왔을 때 마테오리치가 천주교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과학도 가지고 왔습니다. 망원경, 지도, 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중국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서학에 종교적, 과학적, 철학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학(實學)이라고도 합니다. 서광계라는 인물이 있는데 마테오리치를 도와서 기하원본을 번역했어요. 그 전에는 기하학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기하학 지오(geo) 이러한 것을 통해서 농업방면에 새로운 기술을 쓴 책이 농정전서(農政全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것이 소개가 돼서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농정전서의 상당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농업기술의 개량, 제도의 개혁, 이러한 사람을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이기(理氣)를 논하는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학은 도(道)가 없는 실학(實學)이지요. 제도(制度)적인 것만 가지고 실학(實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학박물관을 가 봐도 우리나라 실학은 경세치용(經世致用),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 이렇게 말합니다. 경세치용은 세상을 다스리고 실질적인 쓰임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용후생은 잘 이용해서 생활을 넉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정덕(正德), 이용후생이라는 말입니다. 실사구시는 실사(實事)에서 옳은 것을 찾자, 뭐가 옳고 그른지 양명학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 이것이 사실 양지거든요. 양지를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빠진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서 지(知)에 대한 문제가 주자학에서 지(知)는 지각(知覺)의 지입니다. 양명학에서는 지가 양지(良知)의 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격물했을 때 물은 주자학에서는 외물(外物)입니다. 양명학에서는 일 사(事)입니다. 주자학은 정태적으로 보고, 양명학은 동태적으로 봅니다. 양지를 주자학에서는 하나의 지각에 불과하다, 훌륭한 지각이라는 거죠. 지각은 작용이고, 본체는 천리입니다. 성(性)은 본성, 천리이며 본성의 작용

이 지각, 지식인데 본성만이 천리가 되는 겁니다. ‘양지는 본성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양지(良知)가 천리(天理)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양지는 지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선천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각과 분리되지 않게 드러난다. 동체(同體)인 거죠. 지각에 의해서 막히지도 않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각이 용(用)인거죠, 체용(體用)은 함께 늘 드러나는 겁니다. 체용이라는 말이 역동적인 것 속에서 팽이를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은 작용(作用)입니다. 작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체(體)입니다. 작용이 안 되면 팽이로서의역할을 못합니다. 변화하는 가운데 늘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것이 체(體)라고 합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안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화를 한다면 그것이 용(用)입니다. 체용(體用)은 하나입니다.

유한형 : 체용을 주자학, 불교에서는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정인재 : 체용은 원래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작용하는 주체를 체(體)라고 부릅니다. 용은 그 주체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용(用)입니다. 지금 정지하면 체로 돌아간다, 양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귀적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뭐냐 했을 때 주자학 체계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본체, 심성, 공부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체론은 이기(理氣)에 관한 것 입니다. 심성(心性)은 본성과 심에 관한 겁니다. 공부(工夫)는 내외가 있는데 외적인 것의 공부법은 격물치지, 궁리(窮理)입니다. 내적인 것은 함양(涵養), 거경(居敬)입니다. 거경궁리가 대표적 공부방법입니다. 이기론, 심성, 공부론 이것들은 상당히 이론적 체계가 튼튼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은 리(理)와 기(氣)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질의 청탁(淸濁)이 있기 때문에 맑은 사람은 성인(聖人)입니다.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목적은 성인(聖人)이 되는 겁니다.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성인이 됩니다. 어떻게 맑게 하느냐라는 공부론에서 거경과 궁리가 나타납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맑게 해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기질,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화내는 것, 욕심내는 것 상당히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미발(未發), 이발(已發)을 생각해보면 희노애락지미발위지중, 중(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꼭 알

맞은 상태를 부릅니다. 외물과 접촉했을 때 딱 드러났을 때는 화(和)라고 부릅니다. 미발의 중(中)이 반드시 이발의 화(和)와 조화가 되느냐? 그것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꼭 알맞게 드러나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표현이 되면 안 되지요. 수양이 된 사람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때, 중절(中節)이라고 할 때 절(節)은 마디입니다. 그 마디는 때와 장소,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 화라는 것이 미발, 이발했을 때 미발의 것이 그대로 이발이 된다는 것이 현성양지과입니다. 정제두 선생은 양쪽 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주자학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가 뭐냐 했을 때, 공부론의 외적인 것이 격물치지입니다. 리(理)는 태극(太極)입니다. 기(氣)는 음양(陰陽), 오행(五行)입니다. 만물이 그렇게 된 까닭, 이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리(理)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겠죠.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와 소이당연지칙(所當然之則)을 이야기한 겁니다. 존재의 이유고, 서양에서는 존재의 이유를 따지는 것과 당연법칙을 따지는 학문을 구분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과학과 윤리 종교 이런 것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여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 마음 속에는 존재와 당위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하는데 거기에 당위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들이 일반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해놓으면 되거든요. 당위를 자꾸 말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말을 value free, '가치중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에 관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리(理)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서양이 과학이 발달된 이유도 나눠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도 좋은가'입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이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해 쓴 것이 순수이성비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 쓴 것이 실천이성비판이고 세 번째는 판단력비판입니다. 이 3대 비판서를 쓴 것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과학의 근거를 분명히 한 책입니다. 윤리문제도 이야기하고 미적인 문제를 쓴 겁니다. 과학과 윤리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와 소이당연지칙(所

當然之則)을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음양오행의 구체적인 것이 ‘기(氣)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는 형하(形下)입니다. 이기(理氣)론은 주자학에서는 형상형하(形上形下)로 나뉘어집니다. 정명도(程明道)와 정이천을 둘 다 정자(程子)라고 부르는데, 명도는 도(道)가 기(氣)고 기도 역시 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천은 도(道)는 형상이고 기는 형하이기 때문에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이천을 받아들인 것이 주자고, 명도를 받아들인 것이 양명입니다. 이기(理氣)가 상하(上下)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사회적 의미로 보면 양반은 상(上)이고 상인은 하(下)입니다. 직업에도 귀천(貴賤)이 있습니다. 철학의 체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주본체가 형상형하(形上形下)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을 볼 때 ‘리(理)를 타고난 것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이다, 기(氣)를 타고난 것이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라고 말합니다. 흙탕물 속에는 진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본연지성이 있는데 기질지성이 맑으면 본연지성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기질지성이 바로 정감(情感), 욕심(慾心)입니다. 그러면 기질지성은 심을 이야기 했을 때 성과 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은 리고, 정은 기입니다. 심은 늘 본연지성을 잘 지키고 정감의 기질지성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과 본연지성(本然之性)은 같지 않습니다. 심(心)은 정(情)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기(氣)는 변화시키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흙물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맑아집니다.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흙물을 정화시키듯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질을 변화시켜서 맑게 만드는 것이 공부론입니다.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외적, 내적인 공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공부가 바로 격물치지고, 내적인 공부가 함양, 거경입니다. 이것이 즉물궁리(卽物窮理)입니다. 다가가서 물의 이치를 끝까지 캐낸다는 겁니다. 리(理)가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격물치지는 상당히 자연과학자들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사이언스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중국사람들은 과학을 격치학(格致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나무 한그루 모두가 리(理)가 내재돼 있습니다. 자연과학으로 발전했다면(주자가 1200년대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서양은 토마스아퀴나스(중세) 시대입니다. 제도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리(理)가 구체화된 것이 예(禮)입니다. 주자학에서의 물(物)이라는 것은 예(禮)를 잘 찾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소이연, 소당위입니다. 외적인 것에서 찾아낸 것이 예(禮)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함양(涵養)해야 합니다. 오이와 된장이 처음에는 따로 있지만 나중에는 삼투압작용으로 된장과 오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함양(涵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곁핥기식은 구이지학(口耳之學)인데 마음 속 깊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덕성(德性)을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인 천리(天理)를 지키고 거인욕(拒人慾)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 공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천리를 잘 지키고 함양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성성적(惺惺寂寂), 불교에서 내가 늘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전방에 있는 보초병이 적이 어느 틈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늘 감시하는 태도, 늘 천리(天理)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상태를 거경(居敬)입니다. 거경을 하고 궁리(窮理)를 하는 겁니다. 양명학에서는 격물치지를 비판합니다. 내적인 공부에서는 경(敬)보다는 성(性)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반나절은 독서하고 반나절은 정좌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비한테는 꽤 많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사람한테는 힘들지요. 누구한테나 다 요구한다. 할 수 있을 까요? 주자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죠. 주자학적인 공부론을 알아야만 양명학의 공부론과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자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격물치지라는 것이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류입니다. 친의별서신(親義別序信)이 인의예지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만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연지성(本然之性)입니다. 서양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도층에서는 지도자가 되려면 가(家)가 없습니다. 지도자, 수호자, 생산자로 나뉘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지혜, 수호자의 덕목은 용기, 생산자의 덕목은 절제, 이것이 플라톤의 이상국가입니다. 불교, 도교, 서양에서는 가(家)가 없습니다. 유교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인간본성으로 봅니다.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맹자(孟子)입니다. 고자와의 비판 속에서 고자는 ‘자연 그대로다’라고 말했어요. 맹자는 그것이 아니고 인의(仁義)라는 것이 따로 있다. 자연 속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고자는 ‘태어난 그대로가 성(性)이다.’라고 말합니다. 맹자는 개나 소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통점은 기질지성(氣

質之性)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理性)만 있다고 하고 덕성(德性)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유교적 전통만 있는 나라가 인정합니다. 유교를 어떻게 세계화 시키느냐에서 지금도 중국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주자학으로는 힘듭니다. 개인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서양에서 인륜을 더해서 말하자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삼강은 떼어버리고 오륜만 얘기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형 : 유상(儒商)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정인재 : 유상이라는 말은 1990년 이후에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악덕기업도 있습니다만 유통시키고 편리하게 만든 이윤을 추구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회환원 하는 사람을 유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학교를 짓고 의료사업을 하는 등 많은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유한형 : 서양에는 인의예지, 의식조차 없으니 유상이 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정인재 : 유상(儒商)이라는 개념이 막스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기독교윤리입니다. 사랑, 그래서 자본이란 고리대금입니다. 업자와 자본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리대금업자는 돈에만 신경을 씁니다. 자본가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를 해서 돈을 들고 이윤이 생기면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자본가인데 이 정신적 지주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검절약을 해서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3년에 중국사람이 막스베버 이것을 번역을 해서 쓴 책이 중국 근세 종교 윤리와 상인정신입니다. 양명학자를 이야기 합니다. 중국에 신안상인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교적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특히 양명학의 정신에서 왕양명이 상인의 묘지명을 쓰면서 이업동도(異業同道)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면서 상인이 한 얘기가 유학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현대화 시킨 것이 유상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제가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일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팔릴 거라 생

각했는데 안 팔렸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운동권이 강하게 나왔을 때 칼 맑스의 주의를 샀기 때문에 막스베버의 책이 나오니깐 잘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철 : 중국 본토에서도 유학사상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인식이 돼있나요?

정인재 : 모택동시절에 비림비공(批林批孔)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립표가 이인자거든요. 립표와 공자사상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모택동이 반봉건, 반제국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유교였죠. 립표가 유교를 내세운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 시절에는 유교를 할 수가 없었죠. 끝나고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풍우란이 비판을 받고 있었고, 등소평이 등장하고 실용주의 노선(黑苗白描)이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죠. 그 때부터 개혁, 개방을 하는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1980년도 중반에 인민일보, 동아일보 주최로 유교에 대해서 국회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은 1984년도에 기업인들과 학술대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학(儒學)에 대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해외에다가 공자(孔子) 학원을 세웁니다. 중국어와 유교를 가르칩니다. 유교를 앞으로 많이 내세울 겁니다.

정원철 : 시진핑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유교가 빠지는 거죠?

정인재 : 그렇죠. 법륜공(法輪功), 기공을 하면서 사상을 키우는 건데 종교적 조직도 엄청 키웁니다. 도교는 늘 불안할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중국이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최원배라는 북경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종교보다는 미학이다. 서양, 중국은 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지향적이 강합니다.

이병권 :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점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읽혀지고 있는데,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론 안에서 호락논쟁(湖洛論爭)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인재 : 동론(同論)과 이론(異論)이 있는데 청나라가 들어오는데 우리와 인성이 같으냐 라고 봤을 때 이론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양명학으로 갈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양명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원철 : 인물성(人物性) 동론(同論)을 주장한 사람은 주자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겁니까?

정인재 : 아닙니다.

이병권 : 정치적 문제가 강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정인재 :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남훈 : 주자학에서는 경(敬), 양명학에서는 성(性)을 강하다고 말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일관일성(一貫日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관성이 있나 궁금해서요.

정인재 : 거경(居敬)과 성(性)을 봤을 때, 거경에서 심(心)은 늘 본성(本城), 리(理)를 놓쳐서는 안돼요. 심(心)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심의 역할이 양명학에서는 심이 바로 리다(心卽理). 리는 자기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 주재할 수 있는 것인데 심이 발동돼서 나온 것이 의(意)입니다. 심이 본체고, 의가 반드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의가 나쁜 의도가 될 수 있으니까 성(誠)이라는 것은 의가 참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순한글로 돼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일물(一物)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물은 나와 의미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그것이 물(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격(格)은 바로잡는다(正)입니다. 양지(良知)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치지(致知)입니다. 격물, 치지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치지는 치양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치양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주자학에서는 거경궁리 격물치지를 모두 해야지요.

정원철 : 격물치지를 이야기 할 때 양명학에서 격물치지는 양지가 드러나게끔 하는건데 사람이 모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인재 : 주자학에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뭘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신유학자는 아는 것이 과학의 문제입니다. 양명학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붙여버려서 어렵습니다. 현대신유학자들은 과학의 요소를 양명학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양지와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양지감합론입니다.

정원철 : 책을 많이 읽어라 했을 때 주자학적인 격물치지인데 양명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현대신유학으로까지 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정인재 : 독서하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독서만을 위한 독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독서를 하지 말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독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5강, 2016년5월18일

정인재 : 136페이지에 양명학이라고 써야 할 것을 주자학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수정바랍니다.

유한형 : 격물(格物)에서 격(格)이 주자는 물에 이르는 것(至), 닿는 것 양명은 물을 바로잡는다(正)는 거죠?

정인재 : 네, 그렇습니다. 물(物)도 왕양명은 사(事)라고 했습니다. 역동적인 것이지요. 바로잡는다는 것은 맹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양명의 이름은 수인(守仁)입니다. 왕양명이 태어난 곳이 서운루(瑞雲樓)입니다. 왕양명이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그를 보고 ‘도파(道破)했구나’라고 했습니다.

유한형 :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도파했다고 했을까요?

정인재 : 천기(天氣)가 누설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름을 운에서 수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12살 때 선생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고관대작(高官大爵)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수인은 성인(聖人)이 되겠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어느 장군을 좋아해서 병정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지방에 여러 도적들을 격파하는데 많은 공을 세웁니다. 작전을 잘 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천자(天子), 제후(諸侯)가 있습니다. 명

나라가 주원장이 통치를 하면서 나라에 자기의 아들을 봉해줬습니다. 남경 근처에 신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양명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을 이루고도 왕양명이 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왕양명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경험한 철학이 바로 양지(良知)입니다. 양지를 어려울 때마다 판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왕양명은 양지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왕양명의 생 자체가 매우 역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18살 때, 주자학자인 누량(婁諒)을 만났는데,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는 들었어요. 그 전에 혼인을 했는데 양명이 혼삿날에 왕양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양명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양생(養生)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사가 거처하는 철주궁(鐵柱宮)에서 도사와 하루 종일 양생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왕양명의 성격을 혹자는 광자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양명 아버지의 관사(官舍)에 대나무가 썩어 있었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물물마다 태극, 리를 가지고 있으니 대나무를 열심히 격(格)하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格竹故事)라고 생각했습니다. ‘활연관통(豁然貫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관통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는 친구, 전(錢)이라는 사람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해도, 몸만 아프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나보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노장사상에 빠졌습니다. 불교에도 심취했습니다. 유교와 거리를 두고, 주자학보다 불교, 노장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는 말은 불교용어입니다. 양명은 그런 말을 그대로 씁니다. 왕양명은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그 쪽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35세가 돼서 대간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잘못을 하면 고발하는 자리를 대간(臺諫)이라고 합니다. 환관들이 문서수발을 하면서 실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는 주원장은 원래 출신이 승려(僧侶)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재상은 지식인의 최고 제도였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만 남겨두고 지금의 국무총리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환관을 뒀습니다. 환관이 잘못을 하니까 대간이 상서를 올렸는데, 환관이 가장 먼저 봤겠죠. 그래서 40대를 맞았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37살 때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귀주성에 있는 용장(龍場)입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왕양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주변 스님들이 보니까 호랑이한테도 안물리고 멀쩡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용장에

도착했는데 왕양명은 거기서 석관(石棺)을 짜놓고, 생활했습니다.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가 밖에서 천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천리(天理)라고 깨닫게 됩니다. 왕양명의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한형 : 용장에서 어떤 충격을 받은 건가요?

정인재 : 그냥 깨달은 겁니다. 어느 순간. 37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왕양명의 핵심, 심즉리(心卽理)입니다. 그 다음에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배에서 풀리고, 변방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57세에 반란을 진압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그저 학자의 학문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왕양명’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방영이 됩니다. 언제 한 번 문화원에서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양명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택동 시절에는 왕양명이 인민을 죽인 나쁜 이미지로 그렸습니다. 유물론자가 아니니까.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 떼를 소탕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인물로 부각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계모에 의해 자랐습니다. 왕양명 정난론이라는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송병호 : 필유사언(必有事焉).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毋必), 의로운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인재 : 필연성(必然性). 자연과학조차도 필연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미생이라는 고사(尾生之信)도 있지 않습니까?

유한형 : 미발(未發), 이발(已發)이라는 개념이요. 미발이 이발 가운데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발이 미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인재 : 만약에 이발(已發) 속에 미발(未發)이 없다면 중(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中)과 화(和)가 있을 때, 화(和)가 되려면 중절(中絶)이 돼야 되

겠죠? 중화는 작용이 누가 합니까? 중절할 때 딱 알맞게 하는 이발이 아니라 중(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미발(未發)이 항상 작용을 합니다. 정태적으로 선후를 나눌 수가 없는거예요. 주자학에서는 정태적이기 때문에 미발, 이발을 나눠서 공부해요. 양명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됩니다. 미발 상태에서 이발이 있지요. 이발 상태에도 미발이 있습니다. 팽이 속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道), 미발(未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용(體用)일원입니다. 그래서 미발, 이발 공부론을 놓고 양명후학에서 갈라집니다. 양지귀적과는(미발 속에 이발이 있다는 것은 인정)근원에서부터 공부하는 것, 양지현성과는 흘러나오는 곳이나 흘러들어간 곳이나 양지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과는 흙탕물 속에도 맑은 물(양지)이 있다,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양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형 : 흙탕물을 가라앉혀서(공부를 통해) 맑은 물을 찾는 것이 정통파군요.

정인재 : 심체(心體)와 의(意). 의는 심(心)이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 의(意)입니다. 의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이 있는 것이 의입니다. 양명의 철학에서 성의(誠意)를 중시합니다. 의(意)가 자유의지니까 나쁜 데로 흐를 수 있잖아요. 내 뜻이 진실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자학에서는 거경(居敬)이 공부고 양명은 성의(誠意)입니다. 거경(居敬)은 천리라는 외적인 대상이 있으니 대상을 놓치면 안됩니다. 그것이 거경궁리입니다. 궁리(窮理)는 외물의 리를 끝까지 파악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궁(窮)이라는 말은 동굴에 활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죠. 끝까지 캐물어가는 거예요. 왕양명에서는 내 마음이 천리(天理)니까 이치가 드러나도록 잘 하는 겁니다. 심체(心體)는 선(善)하지만, 마음의 작용이 의(意)인데 유선유악(有善有惡)하니까 선(善)하게 하려면 성의(誠意)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자학은 객체를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유한형 : 중용(中庸)에 있는 사상을 거의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재 : 주자는 항상 이분화시킵니다. 그것을 통일 시킨 것이 양명입니다. 중과 화를 한 데 합쳐서 중화론을 말합니다. 이발 미발도 합쳐서 말합니다. 그래서 치중화(致中和)나 치양지(致良知)나 같은 말입니다.

전남훈 : 412페이지에 용장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37세라고 했습니다. 왕수인 이후에 대성을 이루신 분이 하곡 정제두 선생이라고 하셨는데 정제두 선생이 신해년 6월에 동호의 깨달음이 나오죠. 여기서 동호는 동해바다를 말하는 건지 서해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원철 : 동호는 압구정 지역인데, 서호를 서교동이라고 했고, 중국을 기준으로 한강 기점을 해서 압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훈 : 23세인지 83세 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만, 하곡 선생이 집안 식구들이 다 죽으면서 벼슬도 안하고 할아버지가 공부만 해라라는 추리로 봤을 때 이 때 이미 양명학적 지식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장을 보면 20세 때 강릉을 가서 산천을 돌아다니는 기록을 봤을 때, 23세에 깨달음을 얻은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언은 60세 이전에 쓴 글이지요. 그래서 20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흥에서 실심실학(實心實學)을 뿌리내렸기 때문에 강화보다는 시흥이 모든 면에서 하곡학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재 : 양명후학까지 다 알아야 사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명학을 배우는 동시에 깨달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양명학을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40세에 자기 동기와 양명학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추곡(楸谷)에 계실 때 민이승과 논쟁을 했으니깐 그 전에도 양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23세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원철 : 학변과 존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인재 : 존언은 자기 말을 남긴다 순수한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학변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학문을 분명히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원철 : 412페이지를 보면요. 중극론(中極論)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이 한국 양명학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치양지에 대한 대책부분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건데, 생리(生理), 인리(仁理), 천리(天理) 함께 수행해서 실천하는 중극론이 등장하였다.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개 모두 천리라고 생각하는데 구분을 해놓고 중극론을 제시했다는 것이 결국은 치양지를 이해했다는 선으로 이해했거든요. 억지로 떼어냈지만 실상은 구분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정인재 : 사실 자세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하곡학보다 양명학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물리(物理)는 주자학적인 것을 말하고, 생리(生理), 진리(眞理)는 하곡이 말한 거거든요. 물리는 영통(靈通)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통(條通)만 있을 뿐입니다. 생리(生理)는 영통을 한다고 말합니다. 영(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靈)이 있어야 생명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유학이 오면 인(仁)은 생명의 씨앗을 말합니다. 도인(桃仁), 행인(杏仁)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도인은 복숭아 씨앗이거든요. 행인은 은행 알맹이. 불인병(不仁病)이라는 것은 수족이 안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신불수(半身不隨). 생명의 기운이 안 통하는 겁니다. 생리(生理)라는 것은 모든 삶의 결. 리(理)의 부수는 구슬 옥(玉)입니다. 옥을 잘 다스리는 것. 결대로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리(理)라는 겁니다. 문(文)이라는 것은 무늬입니다.

추상화돼서 도가적으로 됐을 때 현리(玄理)라고 부릅니다. 현리는 노자의 현지우현(玄之又玄)이 나옵니다. 우주의 가장 끝은 검다는 겁니다. 물도 얕으면 하얗지만, 더 깊은 물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의 배후는 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유와 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도가의 리를 현리(玄理)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진시대에 학문을 현학(玄學)이라고 합니다. 신도가는 노장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 이론이 들어왔을 때 공(空)사상을 이야기 합니다. 공리(空理)라고 부릅니다. 물리(物理)에서 현리(玄理), 현리에서 공리(空理), 그리고 현리, 공리를 비판해서 나온 것이 성즉리의 성리(性理)입니다. 왕양명은 성리가 아니라 심리(心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대에는 사리(事理)가 있습니다. 현대는 물리(物理)가 있습니다. 주자학의 성리는 즉물(卽物), 궁리(窮理)했을 때 이 때 리는 물리(物理)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명학의 리(理)야말로 생명의 리(生理)다. 그리고 그것이 인의 리이기 때문에 인리(仁理)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정

하곡입니다. 양명학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겁니다. 영통(靈通)이라는 말도 사실 주자, 양명학에는 없습니다. 정제두가 유일합니다.

전남훈 : 하곡선생이 언어가 끊겼다고 하셨는데 학문에서 말문이 막혔다는 건지 잘모르겠어요.

정인재 :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지에 도달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존언, 학변이 40대 즈음 추곡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순간 개념화돼서 매여 버리거든요. 서양에서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표현도 틀 속에 있는 신을 죽여 버린 거지요. 선종은 언어 속의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말한겁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선종의 정신을 이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정원철 : 사상이나 철학이 있으면 그 사상이나 철학으로 세상을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양명학의 사상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객관(客觀)세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명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재 : 철학은 오류(誤謬)의 역사라고 합니다. 비판을 계속하니깐요. 양명학도 일종의 주자학의 오류를 비판하며 나온 거거든요. 기학자들은 또 양명학을 비판합니다. 모택동 시절, 리학과 심학을 ‘리학은 객관유심주의, 심학은 주관유심주의, 기학은 유물론’으로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씁니다. 현대 철학에 맞게 나온 것이 신심학입니다. 비판했던 것을 다시 되살려서 양명학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서양철학도 전부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곡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양명학의 전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명학의 논변도 써야 합니다.

유한형 : 작년에 인천에서 강의 한 번 하셨을 때 양명학회장님인가 그 분이 양명학은 다 파헤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할게 없다고 하거든요. 양명학에 대한 문헌,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서 다 독파돼서 끝났나 보다 했어요.

정인재 : 아니에요.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하곡학은 강화에서 이견창, 이견방 등 후학들이 있는데 그 외 많은 문집들이 있는데 문중에서 안보여줍니다.

정원철 : 공부방법에서요. 격물치지(格物致知)관련이요. 양명학에서 치양지(致良知)는 지행합일인데 지행은 하나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걸로 판단했고요. 결국은 자기 마음인데요. 즉물(卽物), 궁리(窮理)에서 사실 양명학적인 방법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이치를 깨닫기 보다는 자기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인재 : 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破山中敵易破心中敵難)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 쉽고, 마음속에 도적은 어렵다는 거지요. 마음속의 도적은 사리사욕을 말합니다. 즉물궁리라는 것이 주자학의 대표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외물에다가 가서 이치를 캐물어서 지식을 밝히는 겁니다. 양명학의 치지는 치양지의 뜻입니다. 양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사사물물 속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왕양명은 물(物)이 아니라 사(事)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사가 더 중요합니다. 지와 행을 나눌 수가 없는데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양지를 위한 행위는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사상마련(事上磨鍊)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양지가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심중적(心中敵)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지로 판단했을 때 누구나 다 수궁할 수 있는 것이 사상마련입니다. 치양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용계 깨달음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오(解悟), 정오(澄悟), 철오(徹悟)라고 했습니다. 해오는 지식, 문자로 깨닫는 겁니다. 정오는 마음에서 조용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철오는 사상에서 양지를 드러내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상마련(事上磨鍊)은 철오(徹悟)에 해당됩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양명학은 내가 스스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상마련입니다. 하곡의 정신이 실심(實心)실학(實學)입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양지(良知)실학(實學)입니다. 왕양명도 실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왕용계문집에도 실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실학은 정신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원철 : 저는 추곡서원에서 하곡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과사전에 추곡

이라는 말(號)이 등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곡(霞谷)이 대세인건 어쩔 수 없는데 시흥에는 추곡(楸谷)이라는 마을이 있으니 시흥에서도 하곡이라고 말을 하는 건 어색하더라구요. 우리만이라도 추곡학이라고 말했으면 합니다. (호가 백과사전에) 등재가 되고 강화와 협력을 할 때에는 하곡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재 : 사실 강화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주자학이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지명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화에서는 경학(經學)을 주로 했습니다. 경학을 하면서 양명학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철학적인 논변(論辯)은 추곡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곡학은 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도 있습니다. 주자학을 했는데 하곡을 이어받았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원철 : 양지와 실심의 차이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다른니까?

정인재 : 박필일이라는 제자가 두 번째 상소문에 정제두를 실심실학의 유종(儒宗)이라고 했습니다. 실심실학이라는 말은 실심(實心)으로 실학(實學)을 하는 거거든요. 실심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성심(誠心)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지(良知)가 무자기(毋自欺)라고 했을 때 성(誠)은 진실해서 헛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자기가 양지(良知)라고 한다면 양지의 다른 말이 성(誠)입니다. 실심(實心)은 양지를 포함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정원철 : 실심실학이라는 말을 어느 한 후학이 말했다고 해서 쓰는 것은 선부르다고 생각하구요. 중국은 (조선처럼)양명학을 배척하지 않고 계승되었기 때문에 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인재 : 중국에서 실학(實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 이후입니다. 한국은 1930년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니 정제두가 발견된 겁니다. 청대의 고증학을 박학(博學)이라고 봤습니다. 실학을 쓰지 않고. 양계초가 청대실학을 쓰면서 ‘근 300년 학술사’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학을 말할 때 주자학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한형 : 실학(實學)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상 제대로 성립된 것도 없는데 학자들이 부풀려서 실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인재 :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양주 실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실학을 얼 빠진 실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곡의 실심실학을 다시 조명하자고 한 겁니다.

생리(生理), 인리(人理)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이 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도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6강, 2016년5월25일

정원철 : 인식론과 현상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상학은 양명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전남훈 : 중극(中極)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권 : 양명학에서 양지(良知)의 종교적 특성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정원철 : 왕양명과 정제두 선생의 차이가 생리(生理)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제가 정인보선생의 양명학 연론(演論)을 펴 봤는데요. 정인보 선생은 감통(感通)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생리(生理)라는 말은 안보이더라고요 양명학의 원래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정제두 선생하고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인재 : 인식론, 현상학 질문하셨는데, 서양철학개론에서 철학을 얘기할 때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에서 윤리학, 미학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철학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형이상(形而上)학은 우주만물이 있을 때 가장 근원적인 실체가 무엇이나 그런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실체가 무엇이나 그랬을 때 마음이나 물(物)이나 할 때 유심론(唯心論) 유물론(唯物論) 이렇게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그게 가장 궁극적인 실체냐, 이세상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 유심론 크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양(東洋)은 무엇이나 할 때 동양은 궁극

적인 실체는 도(道)다’ 이렇게 얘기하고 궁극적인 실체는 태극(太極)이다. 가장 궁극적인 거, 신(神)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보니까 철학의 영역에는 들어 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마음이나 물질이나 하는 점에서 유물론 유심론 이런 게 나오고 동양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태극(太極)이다. 그래서 주희는 무극(無極)이 태극(太極), 이 태극은 가장 끝입니다. 태극이 가장 끝인데 태극만 얘기 하고 무극(無極)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할까봐 무극(無極)을 얘기했다. 무극만 얘기하고 태극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모든 것이 나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도가(道家)에 천하만물생오유, 무에서 뭔가 나왔다면 무극(無極)이 뭐냐 할 때, 마치 도가의 무극만 얘기하고 태극을 얘기하면 도가에서처럼 무극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 그런 얘기 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태극(太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그것을 태극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얘기 했는데 이런 영역이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중극(中極)론도 마찬가지로 집니다. 궁극적인 것이 중(中)이라고 할 때 대들보처럼 육상산은 태극만 인정했지 무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마루가 되는 것을 중극(中極)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극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육상산이고 그런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 게 양명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하곡에 와서 중극(中極)론으로 전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곡은 또 의학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여기서 화기(和氣) 이것을 얘기하고 조화롭게 조절하는 능력 그걸 중극(中極)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중극(中極)은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것을 조절하는 면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식론(認識論)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무엇이나 하면 인식이 되어야 아는 겁니다. 한자에서 식(識)자는 개별적인 것을 구별해서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인(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아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거나 개별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문제인데, 한자의 의미는 그렇지만 서양에서 인식론을 무엇이라 하나면 theory of knowledge, 지식에 관한 이론 아는 것에 관한 이론인데 무엇으로 아느냐 맨 처음에 무엇을 갖고 아느냐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이 경험론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 합리론 영국은 경험론이고 대륙의 합리론인데 경험이

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우선이다. 경험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밖에 외물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마치 카메라가 사진 찍으면 그대로 모사하듯이 모든 것이 모사가 되고 그대로 아는 것 보고 듣고, 카메라는 인간의 눈 대신 보는 거죠. 비디오는 인간의 귀 대신 듣기도하고 그런 것이 발달해서 인식론이 발달해 나온 것입니다. 인식론에서 보고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대륙합리론은 오성(悟性)적인 능력, 합리적인 능력- 뭐냐면 수학적인 그러한 것은 추리하고 계산하고 그런 능력은 보고 듣기 하고 다르다. 영국의 경험론은 보고 듣는 것이 우선이다. 대륙합리론은 수학적 으로 계산하고 추론하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다. 합리적이니까. 인식론에서 이와 같이 두 개가 대립이 됐어요. 수학적인 추리, 오성의 능력은 본구(本具) 관념, 경험하지 않고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 이러한 합리적인 것을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본구관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칸트는 양자를 주목을 했다는 데서 칸트가 위대한 것이다. 경험론과 대륙합리론을 종합해서 자기비판철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칸트는 두 가지 종합하면서 흄에 의해서 독단에서 깨어났다. 대표 흄은 모든 것을 경험으로 돌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독단론에 떨어진다. 독단론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집은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다 판단하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다 없다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독단이다. 예를 들어 귀 신이 있냐. 없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귀신은 보고 들을 수 없잖아요 허깨비 이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독단론에 떨어진다. 칸트는 흄에 의해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 한다. 그러면서 인식(認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지만 경험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경험에서 유래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국경험론입니다. 그런데 경험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칸트가 비판한다. 경험이 없으면 지식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다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면 양지(良知)는 경험과 늘 같이 있지만 양지는 경험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양지는 선천적인 것이다. 경험하기 이전에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관념은 아닌데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지입니다. 칸트

가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경험과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점에서 양지(良知)하고 칸트의 인식론(認識論)하고 접근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론은 계산하고 추리하고 따지고 그런 셈하는 능력이 더러 합리론인데 여기서는 본래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칸트는 인식이 성립 되려면 감성(感性) 플러스 오성(悟性)이 있어야 한다. 감성은 감각적인 능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한다. 오성은 따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근원적인가 하지 않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성에도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오성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성립된다. 감성 플러스 오성이 있어야 인식이 된다. 그러면 감성의 형식이 무엇이나면 시간 공간이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을 통해서 내용들이 들어온다. 내용은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론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들어온 정보는 어떤 형식이냐면 시공(時空)의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만 안 되고 이것을 짜 맞추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이것이 뭐다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소금이다 이것은 설탕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다. 판단을 내려야 지식이 성립이 된다. 이것이 소금이었다 했을 때 소금은 예를 들면 희다 딱딱하다. 흰 것은 눈으로 들어오지요. 딱딱한 것은 손으로 만지죠. 냄새 없다 무 냄새 코 들어오죠.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 이걸 귀로 들어오죠. 그럼 눈 귀 코 정보가 다 달리 들어온다. 달리 들어오고 소금이었다 했을 때 맛 짜다, 짠 거 코 손 흰 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눈으로 희다 짜다 희고 짠 것은 소금이다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탕이다 희다 딱딱하다 냄새가 없고 맛이 달다 설탕은 달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금이다 설탕이다 판단을 내릴 때 모든 것이 각각 함께 들어오는데 이것을 짜 맞추는 능력을 우리는 오성(悟性)이라고 해요. 그때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시범주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시범주는 뭐냐면 질 양 관계 양상 이렇게 세 개씩 형식이 되있어요. 모든 것은 짜다 어떤 것은 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울이고 어떤 것은 선이고 판단할 때 모든 것 어떤 것 또 관계에서 ~이다 하고 아니다 이것은 소금이 아니다 할 때 이다 아니다 한 것 이것이 질 관계 양상에 따라서 시범주에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짜 맞춰가지고 형식을 만든 것이다 오성에서 그러니까 오성의 형식에 의해서 이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다. 그것이 소금이구나 하는 개념이

생긴다. 설탕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 이것은 혹은 저것은 소나무다 소나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온다. 감성(感性)의 형식을 통해서 그때 그 장소의 정보가 다 들어오죠. 그런데 소나무다 판단할 때는 오성에 의해서 시비형식에 의해서 소나무라는 지식이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감성과 오성에 의해서 지식이 성립 이것은 단지 현상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거만 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모른다. 그것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물(物)자체는 난 모르겠다. 물(物) 그 자체는 감성이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나의 오성(五星)의 판단에 의해서 지식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론처럼 있는 것 그대로 모사(模寫)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성에 의해서 판단해 짜 맞춘 것이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적당히 들어온 것을 오성에 의해 짜 맞춘 것이예요. 오성에 의해 짜 맞춘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인간의 감성의 오성에 의해서 현상이 판단하는 것이지 있는 것 자체는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인식론(認識論)이다. 칸트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이고 물(物) 자체는 모른다. 그래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질문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物) 자체 계속하는 것이 신(神)인데 신은 경험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물(物)자체계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물자체계는 내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과학적인 근거를 댄 것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다. 과학으로는 경험을 짜 맞춘 거지 짜 맞췄다는 점에서 칸트의 인식론은 구성(構成)론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밖에 뭐가 있어서 모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전환은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사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오성(悟性)에 의해서 명명(命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성(悟性)은 자연의 입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그대로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인들 이름 모를 꽃 많이 얘기합니다. 연성에 보면 연꽃이 피었잖아요. 저것은 연꽃이다 내가 얘기 한 겁니다. 이 오성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지, 연꽃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꽃이다 생각하지 이게 연꽃이라고 분명하게 얘길 못합니다. 개념화를 못한다 이거죠. 감성은 받아들이는 능력은 있지만 개념의 능력은 없어요. 개념의 능력과 감성이 결합된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직관과 개념이 합쳐져야 지식이 된

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성(感性)의 능력은 직관(直觀)의 능력이고 오성(悟性)의 능력은 개념(概念)화하는 능력이고 이 개념화한 능력이 직관에서 받아들인 걸 갖다가 짜 맞춰야 지식(知識)으로 성립된다. 그런데 그건 내가 아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物) 자체에 모르겠다. 신(神) 우주(宇宙)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빅뱅이론에서 우주가 끝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이 없다, 그런 주장이 동시에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 것은 우리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이라는 말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인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아는 능력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뭐다하고 주장을 했을 때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이것을 칸트의 용어로 안티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다 존재한다. 맞다 그러나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틀리다 하느님이 없다, 이것은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맞지만 신자 입장에서는 틀리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동시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한 이것을 일컬어 안티노미(antinomy-이율배반)라고 한다. 물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 했을 때 잘못하면 독단론에 빠진다고 했는데, 칸트는 그것을 안티노미라고 해요. 동시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안티노미라고 부릅니다. 현상을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 얘길 하고 물자체에 대해서 얘길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길 합니다. 그럼 이게 양명학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감성의 능력에서 직관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칸트는 감성의 직관능력을 얘기 했지만 감성을 벗어나서 물자체를 알 수 있는 직관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시다. 물자체를 알 수 있다. 그건 현상에만 알 수 있지 물자체는 모른다. 이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감성적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 들어오는 것, 감성적인 능력만 직관에 한정시켜서 얘기 했어요. 그런데 모종삼 (현대 신유학자) 은 칸트를 비판하면서 양지(良知)는 물(物) 자체도 직관(直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物) 자체는 하느님에 대한 얘긴데 인식론은 과학적인 얘기니 모른다. 이게 종교적인 영역인데 양지(良知)는 그것도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물(物)자체로 알 수 있다는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양명학은 종교적인 영역까지 짝 벗어나간다, 인식론(認識論)뿐 아니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간다 이거야.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왜 종교적이냐 얘기 했을 때 물(物)자체계에는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서양에서는 불가지(不可知)이론에서 물론 도덕 형이상학이라든가 실천이성비판에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모셔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셔왔지만, 순수이성비판에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세상에

서 착하게 살다가 꺾박받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현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좀 있어줘야 되겠다. 내세가 있으려면 영혼이 불멸해야 되겠다 착한 영혼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겠다. 그게 하느님이지 그래서 윤리도덕에서 하느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게 꼭 성립하려면 하느님이 계셔야 악한 놈은 벌주고 선한 사람은 상주고 요청적인 하느님이다

유한형 : 양명학에서 종교적인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입니까?

정인재 : 침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포함한 것이지. 현상계 뿐만이 아니라 물자체계도

유한형 : 물자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정인재 : 그렇죠 직관으로, 지의 직관이라 얘기한다. 양지는 그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한형 : 그걸 뭔가로 증명하던지 관계에 대해서 수증이가는 이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인재 : 양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을 가는 겁니다.

유한형 : ‘더 이상 묻지 마라, 믿어라’는 말씀이지요?

정인재 : 그런 영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양지(良知)와 지식(知識)의 관계, 지식은 현상계를 아는 거예요. 현상계, 예지계는 물자체의 세계, 과학의 영역이예요. 예지계는 물자체계는 일종의 윤리, 종교에 해당하는 영역. 그래서 왕양명은 지각과 양지라고 했을 때 지각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 양지는 대상이 없이도 알 수 있는 능력, 양지는 지각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불유(不由) 지각(知覺)입니다. 그런데 양지(良知)가 지각(知覺)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각과 늘 함께 같이 있어요. 지각 속에서 양지가 들어

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누가 봤다고 하자 놀라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양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각을 안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각의 방해받거나 거기 걸려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순간마다 양지가 드러난다, 양지는 독일어로 마주 서 있는 것, 일어나는 것, 대상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대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타난다. 그것이 양지(良知)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각은 현상계만 알지 예지계를 알지 못하는데 양지는 현상계와 예지계도 알다는 것이 모종삼 신유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주자학은 왜 종교적이지 않냐, 양지(良知)를 지각(知覺)의 차원에서만, 양지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주자학입니다. 양지는 없고 양지는 뭐냐면 훌륭한 좋은 지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자학이다 여기서 예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양명은 양지가 천리(天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천리(天理)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자학에서는 천리가 안 되고 지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자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이 발전 못되는 이유는 양지(良知)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양명학을 펼쳐나가는데 주자학은 양지는 지각에 지나지 않는 거야. 천리가 될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까지는 가지만 종교적인 면까지는 못 간다. 이것이 바로 양명학이다라고 주자학에서는 말한다.

김선옥 : 양지(良知)라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있는 건가, 그러면 양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은 건가요?

정인재 : 양지가 다 같습니다. 양지가 다르면 성립이 안 되죠 양지는 본래의 마음인데, 지각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과 이 지각을 통해서 양지가 들어가는데, 이 지각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 속에 양지(良知)가 다 있다. 양지는 다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지가 없다 얘기 못 한다.

김선옥 : 선과 악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인재 : 선과 악이 문젠데 서양에서는 악을 인정했는데, 동양에서는 불선(不善)이라고 얘기 했지 악(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중용(中庸)에 喜怒哀樂之未發(희노애락지미발-희로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것) 謂之中(위지중-이것을 중이라 하고) 發而皆中節(발이개중절-나타나 모두 절도에 맞은 것을) 謂之和(위지화-이것을 화라고 한다). 중(中)과 화(和)를 얘기 할 때, 가정불화나 사회 불화 이게 뭐냐면 꼭 알맞지 못한 것을 불화(不和)라고 한다. 좋지 않은 거, 사회 환경 속에서 조화롭지 못한 거, 어울리지 못한 거 이것을 불선(不善)이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는 화(和)를 이김, 알맞음이 어울림, 중화(中和)를 치(致)하는 것, 이루는 거 이게 양명학의 전하는 목적입니다. 치(致)중화(中和)는 치양지(致良知) 하고 같습니다. 양지(良知)가 드러날 때, 딱 알맞게 잘 들어나게 이게 중요합니다.

정원철 : 현상학과 인식론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주세요.

정인재 : 현상학(現象學)이라는 학문은 서양의 과학주의, 과학만능주의 심리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학문인데, 과학주의는 객관적인 진리 바깥 쪽에 뭔가 있다하고 생각하고 나온 것, 우리가 자연과학에 있는 것이 가설인데 가설이 학설로 된 건데, 가설은 뭔가 하나 해놓고 이것을 실험 관찰했을 때, 그게 틀림없다, 법칙이 플러스해서 하나의 자연관과 법칙이 되는데 이런 법칙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게 과학만능주의입니다. 심리주의(心理主義)는 이것에 따라서 마음 속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심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상학은 그게 아니라 사물 했을 때 노에시스(noesis-일으키는 작용)와 노에마(noema-대상에 관한 지식), 과거의 대상이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 ~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대상이 아니라 노에마라고 부른다. 그 작용은 노에시스라고 한다. 노에마하고 노에시스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마음이 있으면 의가 있고, 물(物)이 있는데, 이 물(物)을 왕양명은 사(事)라고 봤습니다. 사(事)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물(物)이 아니라, 일정하게 자꾸 움직이는 일이다.

현상학(現象學)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사(事)를 노에마로 본 거예요. 의식이 어떤 (영어)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노에마라 부르고 그 의식을 노에시스라 부른다. 그래서 의 혹은 의식 의도 이것이 건너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사

라고하고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심 밖에 뭐가 있다 존재 한다 이것이 판단(epoche)중이다, 판단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알았는데, 안 것 이외에 뭐가 존재한다. 이것은 일단 얘기하지 말고, 괄호 쳐 놓자하는 것이 현상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명학도 현상학과 비슷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생긴 것이다. 주자학에서는 서(書)를 일물(一物)로 보고 양명학에서는 독서(讀書)를 일물(一物)로 봤다. 주자학에서는 서(書)와 독(讀)은 따로따로예요. 양명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는 독서(讀書)가 있는 것이다, 사친(師親)이 일물(一物)이고 효친(孝親)이 일물(一物)이고 시친이 일물이고, 모든 게 나하고 연관성을 가진 거죠

유한형 : 독서(讀書)라는 걸 하나의 개념으로 하는 거지요?

정인재 : 그러니까 역동적이죠. 읽는다는 거하고 책하고 같이 분리하지 않는 것이 사(事)이다. 우리가 재판할 때 청송하는 모든 행위가 일물(一物)이에요 현상학적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연관성을 가져야 물(物)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